近代化의 諸課題

——社會構造와 民主主義와의 關聯에서——

黃 性 模*

一. 序 言
二. 現代化의 政治的 性格
——한 後進國家의 例: 獨逸——
三. 東洋社會의 變遷
——中國과 韓國——
四. 韓國近代化의 諸問題
——知識人의 役割——
五. 問題提起

一. 序 言

英國의 史家 크리스토퍼·도우슨이 羅馬帝國에서부터 始作한 그의 歐羅巴成立過程秩述의 結論에 가서 「드디어 十七世紀와 더불어, 近代에 이르기까지 거의 아무런 中斷없이 繼續할 수 있었던 進步의 契機가 始作하는것」이었다고 하고 「이러한 契機自體는 交易生活·市民生活·政治組織 그리고 宗教·藝術文學과 같은 社會活動의 各分野에서의 삶의 새로운 形態로서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것은 우리(西洋…筆者)文化의 特色이라고 할 수 있는 諸制度의 創設에서 可能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단순한 地理的 單位以上의 것으로 알고 있는 歐羅巴人의 社會를 形成함으로써 近代世界의 基礎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①라고

*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副敎授·社會學·本所硏究員

① Christopher Dawson, *The Making of Europe*, Meridian Books M35, P. 239

할 때 그것은 Occident와 Orient 間의 社會形態의 差를 말하는 것이었다. 歷史的으로는 오래전부터 東西의 區別은 있었지마는 例컨데 東方基督教圈과 西方基督教圈間의 葛藤에서 볼 수 있듯이 거기에는 對立은 있었어도 社會組織의 優越性이라든지 進步의 概念과 같은 價値內包的인 差別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價値面에서는 古代後期나 中世紀 때는 東方이 優勢했다고도 할 수 있다. 비잔틴과 羅馬의 關係가 이것을 說明하기도 하며 또한 東方人에 의한 攻勢 앞에서 守勢를 維持해 온 歷史가 西方의 中世近世史이기도 했다. 이러한 西方의 守勢가 르네쌍스·宗教改革·啓蒙時代를 通해서 西方的 普遍 즉 地緣的·傳統的 思考方式과 社會制度의 普遍化로 나타나 이것이 中央集權的 統一國家라는 政治形態에로 凝固함으로써 西方이 西洋 中世紀에서부터의 連續性을 斷絶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그냥 近世歐羅巴에로 發展하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教會에서부터의 離脫을 의미하였고 手工業·家內工業的 基礎위에서 營爲되는 商人活動에서부터 企業的 規模의 交易에로의 前進을 不可避하게 했던 時代였기도 했다. 靜態에서 動態에로의 時代! 그것은 近代西洋의 誕生의 陣痛期였기도 하다. 또「그것은 모든 固定된 限界를 넘어서서 跳躍해 나가려는 〈企業精神〉의 時代였고 또한 小市民的·手工業的·靜態的 狹少에서부터 大市民的·資本主義的·動態經濟의 廣場에로의 飛躍의 段階였고 中世紀的 小規模關係에서부터 새로운 巨大化해가는 關係에로의 轉換期이기도 했다」.② 르네쌍스에서 이미 市民의 理想型(Max Weber)이 싹텄다 할 것 같으면 다니엘·데포 ③의 英國에서는 市民의 行動規範으로서의 宗教的 〈資本主義精神〉이 社會的 倫理로서 이미 實證的 基礎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宗教가 이미 唯一한 衝動의 源泉이었던 時代는 지나갔다는 것을 象徵하는 時代였다는 것을 의미하

② Alfred von Martin, *Soziologie der Renaissance*, Ferdiant Enke 1932, P. 116

③ Daniel Defoe, Complete English Tradesman (1725—1727)를 말함

기도 한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이러한 여러要素들의 綜合的 結果는 이른바 〈近代的 人間〉이라는 抽象的 人間型의 發生이었지마는 具體的으로는 그들은 우선 市民이었고 範疇別로는 硏究者·企業家·勞動者였다. 이들에 의해서 交易이 〈宗敎를 代身해서 登場〉④하는 時代가 展開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뜻에서 資本主義的 企業家를 歷史的 人間型으로 規定했던 좀바트가 企業家를 살과 피(Fleisch und Blut)로서 構成된 資本主義時代의 代表者로 設定하고 있을 때 그의 意圖는 分明히 資本主義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企業家의 特色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가 이러한 基本課題를 提示)했던 것은 막스·웨버의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精神」(1904 이 나온지 5年後였기는 하지마는 後者가 資本主義發生의 內的 條件을 探究하였던 反面에 前者는 資本主義的 企業者로 하여금 「經濟組織의 모든 細胞속에서…… 資本主義經濟를 確定하는 原動的 能力者」⑤로 보고 아울러 그에게 一種의 〈普遍能力의 天才〉(Universalgenie)의 資格을 부여함으로써 企業家를 社會性格의 代表者로 登場시키고저 했던 때문이다. 이 點에서는 좀바트는 企業家를 〈captain of industry〉라고 한 마샬과 같은 態度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마치 企業家가 가진 여러 屬性 즉 思考의 合理化·計算的 營利活動의 體系化·自己責任下의 創造的 이니시아티브 등등은 結局 工業革命이라는 結果를 가져 왔고 資本主義的 經濟體制를 이룩하였다. 이와같은 諸力은 막스·웨버가 非基督敎社會(더 嚴密히 말하자면 非카톨릭社會)에서는 생겨날 수 없었다고 지적하듯이⑥ 그것은 歐羅巴人의 他文化와의 比較에 있어서 唯一하게 가질 수 있었던 能力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能力은 十字軍以來로 西方의

---

④ Richard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獨譯) P. 24.

⑤ Walter Sombart, Der Kapitalistische Unternehmer, in :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Bd. 29. 1909. P. 698

⑥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Ⅱ. Hinduismus und Buddhismus, 1923 P. 363 ff

精神속에 殘在하고 있던 宗教的 使命意識과 더불어 無限한 物質的 實踐慾에의 衝動力으로 變한 때 그것은 政治的으로는 絶對君主領導下의 權力國家의 植民地擴張競爭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時代의 흐름과 政治制度의 變遷에 따라 이와 같은 衝動力은 民主主義 政治制度下에서도 强大國내 쇼날리즘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었다.(北美合衆國의 比律賓占領등) 그러나 工業力을 가진 强大國의 自己膨脹을 可能케한 本質的인 것은 歐美人들이 무엇보다도 合理的인 思考方式·正確한 經驗的 觀察 그리고 實際的 効用性으로 志向했던 〈科學〉을 가졌다는 것과 또 身分的 不平等과 拘束性을 克服할 수 있었고 個人에게 創造性을 許容하는 法秩序와 國家體制의 뒷바침을 받고 있었다는 點이다. 이 모든 結果는 人類歷史的上 일찌기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社會組織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無限한 技術發達과 普遍的 分業과 爭競에 立脚한 經濟體制였다. 그리고 이것은 未曾有의 生産과 國民所得의 增加를 可能케했다. 英國의 國民財産의 增加는 1812年에서부터 1875年 사이에 27億£에서 85億£로 늘었고 獨逸에서는 1885年부터 1895年사이에 150億RM에서 250億RM로 增加했다.⑦ 美國도 例外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歐羅巴가 世界에 대해서 優位性을 主張할 수 있는 基盤을 提供한 것이다. 그것은 우선 歐羅巴內에서는 부르죠아지의 勝利였던 同時에 東洋에 대해서는 帝國主義의 勝利였기도 했다. 「부르죠아지는 모든 生産機構의 急速한 改良을 通해서 그리고 또 모든 種類의 交通通信의 끊임없는 發達를 通해서 未開民族들을 文明속으로 몰아넣는다. 文明의 商品에 대한 廉價한 代價는 모든 中國의 城壁을 爆破해버리는 重砲火였고 이로서 부르죠아지들은 未開人들의 끈덕진 外國憎惡를 降服에로 强要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모든 國民에게 만약 그들이 滅亡하기를 願하지 않는다면, 부르죠아지의 生産樣式에 대해서 適應할 것을 强

⑦ Werner Sombart, *Deutscher Sozialismus*, Berlin 1934, P.3의 統計表에서

制당하는 길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이른바 文明을 自己속에로 導入할 것을 强要당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르조지아는 世界를 그들 自身의 固有한 形象에 따라 만들어 낸려고 하는 것이다.」[8] 그리고 約70年前 英國의 로즈베리卿이 大國으로서의 格別한 責任感에서 「우리들의 國民的 責任과 領土는 우리들에게 世界가 언제가는 우리들의 國民的 性格特徵만을 지니게끔 努力해야 할 것이며 決코 다른 國民의 그것에 따르게 해서는 않될 것임을 銘心해야 할 義務感을 喚起시키는 것이다」[9]라고 告白했을 때 帝國主義를 文化價値에까지 高揚시키고 있는 西歐의 種族中心主義(Ethno-centrism)의 편모까지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歷史的으로는 이와 같은 西洋의 優越性은 西洋社會가 近代市民社會에로 再編成되어 가는 轉換으로 表現되었고 社會的으로는 少數의 傳統的 特權層 代身에 더 많은 사람들이 享有할 수 있는 一般生活樣式——그것은 바로 工業化의 結果였다——이 顯在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더 具體的으로 그 再編成의 여러 樣相을 하나하나씩 說明하자면

(1) 比較的 閉鎖的이었던 身分社會 혹은 世襲階級社會가 開放된 階級社會에로 變形해 갔으며

(2) 따라서 傳統的인 身分階位構造가 解體되며 많은 人口가 社會와 土地의 拘束에서 벗어나는 結果 同等한 條件밑에 놓여진 賃金勞動者가 發生하였으며

(3) 工業勞動이라는 새로운 勞動形態에 直面하는 勞動者가 技術的으로 適應障害를 일으키고 價値觀的으로 自己疎外를 하는 狀況이 發生하였고

(4) 工業勞動者를 爲한 社會 諸般條件의 未發達 自體가 重要한 社會問題로서 登場하게 되었고

(5) 이 모든 狀態의 綜合的인 結果가 우선 여러 社會集團中에서 가장 有力한 代表的 集團 즉 企業家와 勞動者間의 葛藤으로 나타나며 社會的으로 이것이 階級對立의 樣相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10]

---

⑧ Marx & 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Berlin 1955, P. 11

⑨ Gustav F. Steffen, *Krieg und Kultur*, Jena 1919, P. 87 31에서 引用

⑩ 이 다섯가지의 樣相은 Ralf Dahrendorf, Industrie-und Betriebssoziologie, Sammlung Göschen Bd. 203, P. 49에 立脚하고 있음

以上과 같은 社會變動의 몇가지의 樣相은 歷史過程의 어떠한 段階에 있어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科學技術이라는 普遍法則에 立脚해서 運營되는 工業이라는 制度가 發生함으로써만 일어나는 歷史的으로는 特殊한 段階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은 特別나게 近代의 現象인 동시에 西洋社會의 作品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西洋人間〉의 地球에 대한 支配의 原因이며 結果였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西洋과 東洋과의 差는 이러한 社會變動 즉 社會再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西洋이라는 槪念은 결코 時間과 空間에 의해서 固定된 單位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特定한 精神的·社會的 諸力의 集合槪念인 것이다. 이 槪念에 해당하는 最初의 나라가 英國이었고 그 다음에는 北美合衆國이었음은 더 說明할 必要가 없다. 이와같은 現象을 文化傳導라고 해도 좋겠지마는, 그러나 그것보다는 社會構造變化의 律動과 法則의 同一性을 가지고 있다는 點에서 英國이나 北美合衆國의 社會變化는 다만 時間的 差를 가진 工業化라는 一般槪念에서 把握할 수 있다.

工業이라는 社會制度처럼 그 生產機能의 變質없이 構造的으로 다른社會에 傳達될 수 있는 制度는 없다. 反面에 政治制度처럼 그 政治機能을 變質하지 않고서 다른 社會에 傳達되기 어려운 制度도 別로 없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西洋과 東洋과의 交流接觸을 말할 때 科學分野別로 보면 政治的 現代化는 民主制度에로의 發展過程이라는 하나의 〈自治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認識될 수 있는 것이고 또 工業的 現代化를 家內手工業에서 매뉴팩처 時代를 겪어 工場制度에로 轉換해가는 「發展의 槪念」이 尺度가 될 수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와같은 一種의 方野別 〈理念型〉은 歷史的·社會的 發展의 實態分析에는 그리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政治的 現實과 政治理論이 同一한 것이 못된다는 眞理와 經濟生成의 速度가 經濟外的 條件으로 말미암아 促進도 될 수 있고 遲滯도 될 수 있다는 經驗的 事實은 現代化의 問題에 대한 解決의 端緖를 다른

次元에서 發見할 必要性을 提示해준다. 그것은 다름아닌 社會構造의 問題이다.

오늘날 新生國家들은 急速한 工業化를 통해서 政治的·經濟的으로 現代國家의 터전을 構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工業化는 民主主義를 實現시키는 特許物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十九世紀以後의 西歐社會史에서 보아 왔다. 二次大戰까지의 獨逸 歷史는 工業化를 위한 政治的 代價를 支拂해온 過程이었다. 그것은 結局 한 社會가 工業化를 통해서 農業社會에서 解脫할 수는 있었어도 前近代的 支配樣式이 現代的(一般觀念으로는 民主的(!)이라는 神話로서 表現되기도 하지마는) 支配樣式과 機能에로 轉換하지는 못한 데에 起因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社會諸關係가 이러한 結果를 가져왔던가? 그러한 社會諸關係는 어떠한 條件밑에서 可能했던가? 그것은 한마디로 社會構造가 現代化하지 않고서는 工業化의 形態와 그 政治的 機能은, 英國의 民主化 過程의 모델과는 다른 類型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 現代化란 어떠한 內容인가?

歐美資本主義가 東洋社會에 浸透해 온 結果로서 일어나는 現象이 現代化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東洋의 各己社會의 傳統的 價値가 自體解體를 하면서 西洋的 價値를 中心으로 再編成을 志向해가는 過程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西歐化(Westernization)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러한 限에 있어서는 現代化는 觀念이나 制度를 資本主義化해 가는 過程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今日에 있어서 現代化라는 口號는 社會主義化에 對立하는 政治的 機能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現代化라는 槪念의 政治的 機能은 마치 한 때 美國에서 人間關係에 대한 學問的 硏究(Human Relations, Public Relations, Labor Relations)가 美國의 冷酷한 資本主義로 하여금 새로운 經濟勞動秩序樹立에 寄與함으로써 이와같은 學問들의 科學的 內容은 드디어는 美國社會內에서 不可避하게 一種의 이데올로기的 性格을 지니게 되었고 그것은 過去의 歐美社會에서 社會

主義가 一種의 救濟思想으로 看取되어오던 것과 같은 役割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新生國家에서도 傳統的 政治機能의 連續性을 斷絶하지 않은 채 現代國家에로의 發展을 위한 方法으로서 現代化라는 槪念을 採擇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의 問題點은 한 國家가 왜 自由主義를 志向하게 되는가, 혹은 社會主義를 志向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根本的인 背景을 政治的 口號 속에서보다는 社會諸關係의 政治的 表現으로서 보고자한다는 事實이다. T. 파슨스가 1942年 自由陣營과 팟쇼陣營의 戰爭이 露骨化했을 때 「現在 팟쇼社會와 自由民主社會間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政治的 志向의 本質的인 差는 一層 더 깊은 構造的 源泉에서 나오는 것이다.」⑪라 하고 二次大戰爭을 軍事力의 衝突 以上의 것 즉 社會的 性格의 差의 對立으로서 보려고 했던 態度는 우리들이 現代化問題를 論하는데 있어서 보다 깊은 洞察力을 가져야하는 必要性을 提示해 주기도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아래와 같은 課題를 우리들에게 남기는 것이다. 즉 한 社會가 現代國家로서 存續할 수 있기 위한 作業으로서의 〈現代化〉過程의 性格과 機能은 「歷史的 社會的 諸條件에 의해서 規定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現代化의 世界的 專賣는 누구도 가질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政治經濟制度는 그의 形式的 模倣만으로는 社會構造와 機能의 現代化라는 結果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많은 實例를 正當化해 주는 證明이기도하다.

二. 現代化의 政治的 性格

——한 後進國家의 例 : 獨逸——

十九世紀에서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政治變遷은 세가지의 重要政治社會的 勢力에 의해서 規定되었다. 그것은 權威主義的 勢力과 全體

⑪ T. Parsons, Democracy and Social Structure in Pre-Nazi Germany, in : *Essays in Sociological Theory*. Glencoe 1958 P. 105

主義的 勢力과 代議主義的 勢力이었다.⑫ 그리고 이 세개의 政治勢力의 葛藤은 各己社會의 構造에서 定型化되었던 것이고 그것은 歷史的으로는 時代樣態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이 세가지의 政治勢力을 定義할 必要는 없다. 다만 政治的 現實에서는 이 세가지가 純粹形態를 가지고 登場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엉켜서 作用하는 것이지마는 問題는 이 세가지의 政治勢力中에서 어느 것의 機能이 人間에게 더 많은 程度의 自由 즉 그들의 삶을 그들 自身에 의해서 選擇된 目標에 따라서 形成할 수 있는 自由를 保障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現代歐美社會의 政治發達史에서는 代議主義的 즉 自由主義的 政治秩序가 그러하였다는 答을 주고 있다.

그런데 왜 地理的으로 西歐에 屬하고 있고 經濟的으로도 工業化되어 있었고 文化的으로도 西方基督教圈內에 있었던 獨逸이 國家社會主義라는 反代議主義를 擇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거기에는 工業社會라는 一般概念으로만 把握되어서는 안될 社會構造的 要素가 있었던가? 그리고 이러한 社會構造的 要素가 자아낸 政治的 結果는 西歐現代史를 하나로만 볼 수 없는 獨逸社會의 社會諸關係分析의 必要性을 提示해주는가? 그리고 結局 이 모든 것들은 西歐의 近代化 즉 西歐社會의 政治的民主化에 功獻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制止했던가?

그런데 獨逸의 경우는 分明히 1945年까지는 後者에 해당했다. 그러면 어째서 그러했는가?

누차 言及한 바처럼 經濟的 近代化와 政治的 民主化는 同一視될 수는 없다. 한 一般概念으로서의 工業社會(industrial society)가 內包하는 雜多한 뜻 속에는 〈資本主義的〉인 것도 의미하며 〈西歐的〉인 要素도 있고 〈基督教文化的〉인 歷史的 背景도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概念이 正統視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獨逸에서와 마찬가지로 工業的이고 西歐的이고 基督教的인 社會에서 國家社會主義가 한때 成功

⑫ Ralf Dahrendorf, Der repräsentative Staat and Seine Feinde, in : *Gesellschaft und Freiheit*, 1962, München P. 237~8

했다는 事實은 獨逸에서의 代議主義의 破滅은 결코 工業社會의 一般的 社會構造에서 由來되는 共通現象이 아니고 本質的으로는 獨逸社會의 特殊한 條件의 結果였다는 것이다.

T. 파슨스는 獨逸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破碎의 構造的 原因을 와이말 時代의 獨逸社會와 相互關聯되는 一聯의 特徵에서 發見하려고 했다. 그는 그 當時의 프로샤의 支配的 地位와 프로샤의 支配階級인 윤카(Junker)의 存在를 無視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윤카의 價値觀은 말할 것도 없이 〈封建的·軍政的〉인 것이었다. 이 윤카는 獨逸이 工業化되기 前부터 發生하고 있었던 官僚層——동시에 이것은 市民으로서의 最高의 特權階級이기도 했다——과 結合하고 있었다.⑬ 윤카와 官僚層은 溫情的인 厚生國家의 思想 즉 프로샤的 保守主義를 媒介로 結合되고 있었다. 그들은 社會階層으로서 이와같은 理念밑에서 工業化를 强行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獨逸에서 이미 根本的으로는 프로샤國家에 의해서 構成되었던 한 社會에서 現代的 工業經濟가 成立했다는 事實과 이 工業經濟가 프로샤的 保守主義의 깊은 作用을 받은 模型에 따라서 存續했다는 事實은 疑心할 바 없이 全體的 發展을 여러面에서 規定했던 것이다.」⑭ 이와같이 해서 歐美의 여러 工業國家와는 對照的으로 獨逸에서는 아무런 經濟的 個人主義도 發生하지 못했고 아무런 自由主義的 資本主義의 터전도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企業的 부르조아지는 있었으나 그들은 傳統的인 官僚的·軍隊的 價値에 從屬했을 뿐 獨自的인 行動規範은 없었다. 심지어는 統一獨逸이 이루어진 後인 1872年에 와서도 獨逸社會政策協會의 創立演說에서 協會의 課題는 「(經濟에 있어서의) 모든 聯關된 사람들의 正當한 利益을 保護하기 위해서 國家의 善意的 干涉을 覺醒시

⑬ T. Parsons, Democracy and Social Structure in Pre-Nazi Germany, in : *Essays Sociological Theory*, Glencoe 1958 P. 105 f

⑭ T. Parsons, ibid. S. 108

⑮ F. Boese, Geschichte des Vereins für Sozialpolitik 1872-1932, Berlin 1939, Anh. IV. P. 248 f

키는」[15]데 있다고 한 것만 보더라도 獨逸의 經濟勢力이 얼마나 古典經濟學의 나라의 그것과 差가 있었는가를 알수 있다. 古典的 부르죠아지는 그들 自身의 힘으로 獲得한 經濟的 地位를 政治的 優位로서 保護하기 위해서 民主主義를 必要로 했던 것과는 基本的 差를 보이고 있다. 工業부르죠아지가 自己를 國家밑에 定置했다는 것이 그리 奇異한 일이 아이라고 하더라도 企業家와 對立關係에 있었던 勞動者들도 自己들이 하나의 自律的인 社會集團이라는 意識을 가질 수가 없었고 自身의 行動을 國家의 決定에 따르게 하였던 傳統은 맑싸르主義를 發生케하기도 했던 것이다. 獨逸의 勞動運動에서는 傳統的으로 企業側과의 協約이 作用力을 갖는 일이 적었다. 文書上의 約束없이 相互理解가 成立될 수 있다는 것은 傳統的·溫情的 關係의 所產이다. 反面에 人間의 行動規格을 定하는 法은 國家權力의 表現이다. CIO와 AFL의 背景를 가진 美國의 勞動運動指導者의 獨逸勞動組合에 대한 아래와 같은 反應은 獨逸勞動運動의 社會意識의 틀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즉「獨逸勞動組合이 傳統的으로 보여주고 있는 法的 規定……이것을 그들은 그들의 目的達成의 重要手段으로 생각하고 있다.……에 대한 信賴的 態度는 美國의 觀察者에게는 적지 않은 놀라움을 자아낸다」[16]고. 要컨대 獨逸에서는 經濟的 부르죠아지나 勞動者나 할 것 없이 그들은 封建貴族과 家長的이면서도 權威主義的인 國家에 대해서 한번도 獨立되어 본 일이 없었다. 英國이나 美國에서는 工業化 그 自體가 벌써 그때만해도 政治的으로 無力했던 부르죠아지의 創作物이었던데 反해서 獨逸에서는 〈위에서부터의 革命〉 形式을 밟았던 것이다. 이 點에 대해서 R. 벤딕스는 工業化의 形態를 두가지로 分類하고 하나를 自律的 企業者階級에 의한 工業化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傳統國家에 從屬하는 企業家層에 의한 工業化라고 規定하고 이 後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說明하고 있는 것은 歐羅巴의 最

---

⑯ W. H. McPherson, Betrachtungen zur deutschen Arbeitsver fassung, in : *Wege zum sozialen Frieden*, H. D. Ortlieb, H. Schelsky 편찬 Stuttgart Düsseldorf 1954, P. 69

初의 後進國이었던 獨逸의 事情를 說明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支配集團과의 競爭은 치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競爭이 社會秩序의 基盤을 抵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政府가 各種特權의 分配를 統制한다는 根據에서 相反對立하는 要求를 窮極的으로 仲裁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17] 이와같이 하여 獨逸의 부르조아지는 처음부터 國家의 恩寵에 의해서만 存續하는 中間階級이었고 英國에서처럼 上層支配階級으로 上昇할 길은 遮斷되어 있었다. 「大英帝國이 成功的인 政治的 單一體를 이루고 있다는 그 自體가 中間階級의 創造物인 것이다.……英國의 中間階級은 그것이 發展함에 따라 個人에게 自由와 더 높은 生活水準을 提供해준 英國國家를 發明해 냈다.」[18] 그러면 獨逸의 中產階級은 어떠했는가.

「……國家社會主義者들은 무엇보다도 中間階級의 自由主義的 政黨때문에 利得을 봤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初期에 있어서의 와이말 共和國의 防禦要塞였던 것이다.」[19]

「히틀러主義가 下層中間階級의 自暴自棄行動으로서 說明되는 限에서는 그것은 十九世紀의 마지막 몇年동안에 始作된 한 運動의 繼續인 것이다. 小商店 所有者, 敎師, 神父, 辯護士, 醫師, 農民, 手工業者들의 物質生活이 十九世紀末보다는 더 惡化되었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反面에 心理的인 觀點에서는 下層中間階級은 점점 勞動階級과 上層부르조아지에 의해서 窮地에 몰리게 되었다.」[20] 中間階級이 부르조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의 中間에 끼어 反感을 가진다는 것은 現代社會의 普通現象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反感이 反代議主義에로 發展한다는 것까지 普遍現象일 수는 없다.

---

⑰ R. Bendix, *Work and Authority in Industry*, N.Y.-London 1956 P. 21

⑱ R. Lewis and A. Maude, *The English Middle Classes*, Penguin Books 1953 P. 67

⑲ S.M. Lipset, Der Faschismus-die Linke, die Rechte und die Mitte, in :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XI (1959) P. 401 ff

⑳ H. Lasswell, The Psychology of Hitlerism, in : *The Political Quarterly*. IV (1933)을 S.M. Lipset 上揭書에서 再引用 P. 405

「1933年에 있어서의 獨逸의 特殊事情은 傳統的인 上部支配層이나 또한 威脅을 당하고 있던 中間層이 그들의 心理와 社會情勢에서 反民主的으로 行動했는데 起因했다. 즉 前者는 右翼的 過激主義의 뜻에서 權威主義的으로 行動하였고 後者는 中間的 過激主義의 뜻에서 全體主義的으로 行動했던 것이다.……中小獨立經營者나 從屬的 事務員이 더 좋은 時代에 대한 浪漫的인 憧憬에서 救濟者를 希求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上層階級 또한 資本主義的 부르죠아지의 自由主義的 傳統을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機能的인 民主主義의 發達에 대해서 促進的 役割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21] 그리고 드디어 獨逸은 힛틀러에게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佛蘭西革命의 間接的 作用으로서 宗教的 基盤을 喪失하고도, 그리고 工業化로 말미암아 經濟的 基盤을 빼앗기고도, 또 一次大戰의 結果로 社會的 基盤이 박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官僚體制와 外交權과 軍隊을 통해서 國家를 掌握해 오던 프로샤官僚上層이 滅亡의 길을 밟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獨逸의 傳統的 權威主義勢力은 여기에서 社會構造的 存在基盤을 喪失하였으나 힛틀러의 全體主義的 勢力의 反프로샤運動은 무자비하게 계속되었다. 獨逸權威主義의 滅亡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폰·핫셀의 日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939年 10月 19日 즉 二次大戰이 始作된지 七週日 後에 아래와같이 쓰고 있다.

「밤벨크에서 호넨守衛는 일제에게 몇장의 貴族名單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와 給士는 死亡表示가 붙어 있는 끝없는 名單에 깊은 衝擊을 받았다. 나치黨이 貴族과 이른바 知識人을 미워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貴族出身의 青年들이 떼를 지어서 戰爭에서 犧牲되어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階級은 「珊瑚」와 같은 雜誌에서 辯明의 餘地도 주지않고 非難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힛틀러가 貴族과 教養階級을 除去하려고 하고 있다고 믿게되는 것

[21] R. Dahrendorf, Demokratie und Sozialstruktur in Deutschland, in : *Gesellschaft und Freiheit*, P. 271ff

은 아무런 異常한 일이 아니다.」㉒

1945年以後 獨逸에 대해서 權威主義的 支配方式은 決定的으로 止揚되었다. 一次大戰後와는 달리 二次大戰後에는 占領軍의 多角的인 作用에도 不拘하고 西部獨逸은 代議制度의 國家에의 길을 밟기 시작했다. 그것은 敗戰이라는 物理的·他律的 結果만이 아니었고 또한 政治制度의 効果만도 아니었다. 오히려 根本的으로는 戰後獨逸에서는 獨逸歷史에 일찌기 볼 수 없을 程度로 代議制度를 機能化시킬 수 있는 깊은 社會構造變化가 進行되었다는 事實을 지적 아니 수 없다. 그 變化中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하나의 〈準自由主義的〉 經濟秩序의 發展이다. 여기서 〈準自由主義的〉이라 함은 獨逸歷史에서 古典的인 意味에서의 自由經濟體制가 있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나, 戰後에 비로소 〈資本主義的〉이라고 記述할 수 있는 諸關係가 發達했던 것이다.㉓ 뿐만 아니라 經濟制度나 그 指導集團이 社會속에 相當한 程度의 確固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過去처럼 政治集團이나 國家官僚에 從屬하고 있지 않다.

다음의 重要한 變化가운데서 戰後에 새로운 上層階級의 發達을 하고 있음은 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비록 그들이 아직까지는 安定된 에리테라고 自認할 수 있는 自家規範을 發達시킬 時間的 餘裕를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메네저層으로서 代議的 國家制度와 密接하게 結合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프로샤時代나 나치時代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것은 그들의 經濟的 指導集團이 그들의 利益을 政治的 權力確立을 통해서 保障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社會學的 變化는 戰後獨逸人들의 價値態度의 變化다. 때때로 이와 같은 變化는 〈物質主義〉에의 傾向으로서 非難되기도 하지마는, 그것은 오히려 個人이 幸福과 滿足을 追求하고 있다는 事實을 反證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道德的 評價의 彼岸에서 말하자면 個人主義와

㉒ The Von Hassell Diaries, London 1948 R. Dahrendorf 上揭書에서 再引用 P. 293

㉓ R. Dahrendorf, *ibid* P. 252ff

物質主義는 다만 自由主義的 制度 속에서만 繁榮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個人的 出世, 高所得에의 志向, 物質的 安樂 등등을 追求하는 人間은 그들에게 더 넓은 個人活動의 範圍를 許容하는 社會的·政治的 空間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傾向은 準自由主義的 經濟體制가 集中化現象에로 自己止揚도 할 수 있고 個人主義와 物質主義가 政治的 無關心에로 發展할 수 있는 危險을 內包하고 있기는 하지마는, 이와 같은 傾向이 過去에 있어서 운카나 힛틀러가 代議制度에 대해서 逆機能을 한 것에 比하면 그 危險度는 적다.

여기서는 다만 獨逸의 近代化는 實은 二次大戰後부터 始作하였음을 밝히려고할 뿐이다. 그것은 獨逸自體로서는 合理化일 것이며, 우리들이 볼 때에는 歐羅巴內에서의 歐羅巴化인 것이다. 그것은 獨逸이 「個人에게 國民의 贊成을 얻기 위한 競爭鬪爭을 통해서만 決定을 내릴 수 있는 權限을 주게 되어 있는 政治的 決定志向의 制度的 調整」의 發達過程이고 그렇기 때문에 〈民主主義的 方法〉[24]의 助長過程이라고 評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三. 東洋社會의 變遷

——中國과 韓國——

스위스의 社會學者베렌트는 말하기를 「傳統的인 社會形態속에서는 그 構造 다시말하자면 特定한 社會集團에게만 經濟·國家·社會에 있어서의 여러課題와 權利가 주어지고 있다는 事實은 運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따라서 合法的인 것으로서 認定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不幸이라고는 생각하면서도 不義라고는 보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代의 가장 顯著한 事實은 아직도 傳

[24] J.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1943, P. 269의 定義를 따랐음.

統的 構造를 지니고 있는 社會의 各階層間에 存在하는 激甚한 不平等과 貧困은 점점 많은 大衆들에 의해서 더 以上 運命的인 것으로 受諾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避할 수 있는 것으로서, 社會的 反抗의 原因과 對象으로서 보여지고 있다는 일이다.」[25]라고 하고, 또 이와같은 事態에 대한 西洋의 責任問題에 言及했던 다른 論文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들이 希望을 걸 나위도 없고 時代的으로 뒤떨어져 있고 內的으로도 腐蝕되어 있는 亞細亞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政府에 不信當하고 있는 代表者들을 우리들의(西洋…筆者)目的을 위한 가장 効果的인 前衛로서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서 社會的 發展의 바퀴를 뒤로 돌림으로써 危機에 빠진 帝國主義的 特權을 救出할 것을 試圖한다는 印象을 받는다. 이와 같은 傾向은 西洋이 其他의 廣大한 世界의 地域에서 그 地域의 上層階級을 통해서 西洋의 優位를 確保하는 方法을 써왔다는 歷史的 事實의 結果이기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覇權은 傳統的 上層階級이 그들의 權力을 喪失하는 程度에 따라서 危殆로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그리고 西方側의 權力所有者들은 그들의 立場을……變化해가는 諸關係에 대해서 適時 自己適應을 통해서 그리고 感銘的인 새로운 國內엘리트와의 構成的 共通作業을 통해서 救하는 것을 怠慢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中國을 喪失하였고 中東의 現危機도 일부러 일으킨 것이다.」[26]

그리고 이러한 危機속에서 新生國의 各社會에서는 近代化問題가 焦急한 課題로서 登場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中國에 있어서의 近代化過程은 近一世紀前부터 外部壓力에서 始作되었음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近代化의 目的을 達成한 結果라고 할 수 있는 社會諸關係를 設定했

㉕ R.F. Behrendt, *Di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Revolution in den unentwickelten Ländern*, Bern 1959, P. 13, 15

㉖ R.F. Behrendt, Problem und Verantwortung des Abendlandes in einer Revolutionären Welt, in : *Recht und Staat* 191/192, Tübingen 1956, P. 32

다고 볼 수는 없다. 世界의 最初의 後進國이었던 獨逸이 그나마도 西部一帶만이 1945年以後 비로소 民主主義的 社會關係를 構成하기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昨日이 所要했다. 그리고 獨逸의 近代化가 늦어졌던 가장 根本的인 理由는 英國과 달라서 獨逸이 工業化되어가는 過程에서도 前近世的 支配構造가 一貫해서 持續되었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社會發達史에서 工業化처럼 社會構造變化에 根本的인 要因으로서 作用하는 것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과 中國과 日本에서처럼 支配構造의 改編없이 工業化를 移殖해온 나라도 없었다. 비렌트가 記述하고 있는 後進社會의 事情은 따지고 보면 經濟軍事教育面에 있어서의 近代化에도 불구하고 支配勢力自體의 近代化가 遲延된 데서 起因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는 이와같은 結果를 가져온 歷史的 過程을 回顧해 볼 必要를 느낀다.

韓國과 中國은 農業社會였고 國家倫理는 儒教的이었고 人口面에서는 小農小作人이 絶對多數를 占하고 있었고 社會的으로는 氏族的 紐帶 위에서 存續해 왔다. 따라서 東洋的 沈滯의 實態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凝固되어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마는 反面에 十八世紀末 英國社會의 變遷을 불가피하게 한 工業化가 없었다는 데도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에 工業化가 急速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果然 우리나라나 中國의 社會는 英國의 그것과 같은 變遷의 모습을 보였을까? 答은 否定的이다. 오히려 그 結果는 우리가 과온 1933年以前의 獨逸의 社會史에 가까왔을 것이다.

韓國과 中國에서는 工業이 發生할 수 있는 社會的 基盤이 없었다. 그것은 우선 여기에서는 歐羅巴에서처럼 初期資本主義가 發生해 있지도 안았거니와 그럼에도 不拘하고 近代的 工場이 發生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中國의 初期工業化過程에서 볼 수 있던 바와 같이 國內治安維持의 必要性에서 일어난 軍需工業이었고 따라서 西洋에서부터의 純粹한 生產技

術의 導入에 不過하였던지㉗ 그렇지 않으면 韓國에 있어서와 같이 日本帝國主義의 韓國의 經濟的 收奪을 위한 施設로서의 生產機構였던 것이다. 그러나 中國은 淸日戰爭에서 敗北한 結果로 外國資本의 流入이 不可避했고 따라서 淸國政府는 이에 對抗하기 위해서 鄕紳階級과 官吏가 所有하고있던 商業·工業資金을 正當化하고 드디어는 半官半民의 企業體인「官督商辦」㉘制度를 設定하기에 이르렀으나 그것은 結局 政府의 特惠融資로서만 機能할 수 있었던 國營企業과 같은 存在였다. 政治的으로는 이와 같은 企業에 官僚——그것은 다름아닌 鄕紳의 代表勢力이었기도 하다——가 參與함을 의미하며 이로써 그들은 地方的으로는 이들이 中央集權的 政府權力의 政治的 權威를 代表하기도 했고 地域社會에 대해서는 傳統的인 社會的 權威로서 大衆의 日常生活의 秩序를 調整하는 社會勢力이기도 했다. 이들의 經濟的 機能은 포이어벨커가 지적하다시피 첫째로는 그들은 그들의 家族뿐만 아니라 그들의 命令에 服從하고 따라서 그들의 社會的 權威를 維持시키는 힘의 根據가 되는 그들의 追從者들을 위해서 莫大한 金額을 〈强奪〉해야만 했고 두째는 이들 鄕紳階級에는 무엇보다도 獨自的인 企業的 이니시아티브가 完全하게 缺如하고 있었던 結果로 그들의 存在는 近代工業과 商業에 直接的 障害가 되었던 것이다.㉙ 이와같은 結果는 中國社會의 傳統的인 行動秩序와 價値構造속에 뿌리박고 있던 生活態度에서 起因하는 것이기도 하지마는 무엇보다도 中國의 法制 및 統治構造의 機能에서 由來되는 것이었다. 포이어벨커는 中國의 權力性格이 初期的 產業形態를 어떠한 結果로 만들어 냈는가를 官督商辦의 例를 따라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㉗ Ssu-yü Teng and John K. Fairbank, *China's Response to the West : A Documentary Survey*, 1839—1923, Cambridge Mass. 1954, P. 61-131

㉘ Albert Feuerwerker, *China's Early Industrialisation*, Harvard Univ. Press 1958, P. 6—8에 依하면 이른바 中國第一의 企業家組織인 China Merchant's Company의 管理體制는 1910年까지 세사람의 官吏와 세사람의 企業家로 構成되고 왔으나 其實은 세사람의 民間企業家中 한사람만이 政府에 依해서 任命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㉙ Feuerwerker, 上揭書 P. 23

(1) 官督商辦企業은 地方政治的 勢力과의 結合의 必然性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2) 條約港口地域에서 오는 企業家들을 地方的 政治勢力은 財政的인 理由에서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事業擴張의 機會는 增大했다.
(3) 거기에다 企業經營에 있어서의 官僚와 傳統的 官僚的 經營方法은 合理化되어야했던 企業的 實際에 巨大한 逆機能을 초래했다.
(4) 뿐만 아니라 近代的인 經濟活動分野 특히 工業은 처음부터 政府의 主管밑에서 制度化된 것이기때문에 合理的 初期資本主義發達에 決定的인 脆弱性을 남겼다.
(5) 이 모든 것의 結果는 政治的으로 政府에 의해서 保障된 產業活動에 있어서의 地方權力層의 特權을 繼續維持할 수 있게 하였다.㉚

一言之弊하면 中國의 初期工業化는 아무런 社會構造的 變化를 隨伴하지 않은 채 始作되었던 것이다. 기껏했자 그것은 現存 支配階級과 半政治勢力이었던 企業家와의 社會學的 連帶를 可能케 했을 뿐이다. 이方法은 特異하면서도 工業的으로 後落되었던 社會가 西洋資本主義의 浸蝕으로 이른바 社會解體過程에 들어갈 때 社會的·政治的 傳統主義를 救濟하는 共通現象이기도 했다. 獨逸이 그러하였고 明治維新이라는 쿠데타를 통해서 皇權을 確立함으로써 工業化段階에 들어간 日本이 그러하였고 典型的인 植民地經濟體制를 强要당했던 우리나라는 더욱 말할 必要조차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皮相的인 觀察者들, 例컨대 中國의 한 經濟分析家의 表現처럼 1930年代의 中國의 工業化를 「鋼鐵과 速度의 世界에로의 跳躍」이라고 表現하고 있기는 하나㉛ 그것은 처음부터 傳統的인 支配構造에 의해서 規定지워졌던 것이다. 그것은 前世紀末에서부터 이미 勞動分業과 技術發達의 밑바침 위에서 세워진 歐羅巴의 生產體制가 中國이라는 아무런 整地基礎가 없던 땅위에 移植되었을 뿐임을 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工業化의 社會的 結果는 우선 새로운 社會的

㉚ Feuerwerker, P. 30
㉛ Fong, Hsien-ding, Industrial Organization in China, *Nankai Institute of Economics*, Nankai Univ. Tientsin, Industry Series, Bulletin No. 10 1937 P. 2

事實들의 登場이었다. 企業家와 勞動者의 數의 增加, 各經濟分野에로의 技術導入, 工場製品이 消費品目으로 大衆的으로 採用됨으로써 일어나는 手工業의 破綻, 그리고 드디어는 都市와 農村과의 傳統的 關係의 破壞로 後進國自體의 社會的 立脚地를 喪失하게 되는 것이었다. 올가·랭이 中國의 近代化層을 말할 때 그것은 結局 都市住民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調査結果㉜에서 象徵되는 것은 西歐資本主義와 가장 接觸이 많은 都市人口集團이 그들의 生活을 西洋文明에게 不連續的으로 適應하였다는 것이고 그 理由는 E.M. 갈㉝이 지적하다시피 中國의 近代化는 처음부터 獨自的인 擔當勢力이 없는 채 始作한 탓으로 徹底하게 全體社會의 새 構成이라는 觀點이 缺如된채 體系없이 他律的으로 始作하였던 데 있었다. 이點은 社會의 各生活分野에서 新舊의 對立을 垂直面에서 序列化시키지 못하고 水平面上에서 分散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 그것은 다름아닌 價値體系의 混亂이었다. 그 根本的 原因은 中國의 새로운 社會集團인 資本家階層은 새로운 價値觀과 새로운 世界觀의 保持者가 되기 以前에 工業과 商業을 實用的으로만 社會制度化함으로써 이른바 英國式의 〈Industrial Revolution〉의 社會學的 基礎를 스스로 遮斷한 데 있었다. 中國의 新生企業層이 얼마만큼 傳統的 社會關係에 의해서 그 發展에 支障을 받아왔는가, Nepotism의 作用이 合理的 企業經營을 얼마나 不可能하게 했는가 하는 例를 여기서 들 必要조차 없이㉞ 大規模工場이라 할지라도 그 管理構造는 傳統的 社會構造와 價値觀의 縮少機能體였던 것이다.㉟

反面에 政治的으로도 孫文의 國民革命運動은 本質的으로 滿州族政權

㉜ Olga Lang, *Chinese Family and Society*, Yale Univ. Press, 1946. P. 101

㉝ E. M. Gull, Essentials of Reconstruction in China, United Kingdom Paper No. 2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0th Conference of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Sept. 1947) Loncon

㉞ Marion Lvey and Shih Kuo-heng, The Rise of the Modern Chinese Business Class,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New York, 1949. P. 2 참조

㉟ Shih, Kuo-heng, *China Enters the Machine Age*, Harvard Univ. Press, 1944. P. 122 ff

에 對立하는 漢族의 獨立이라는 民族主義的 感情에서 始作한 것인만큼 그의 三民主義의 口號에도 불구하고 社會革命的 性格은 끝끝내 發揮되지 못했던 것이다. 社會學的으로 國民革命運動의 指導者들은 大概가 高官大爵아니면 豪商富裕한 家庭의 出身이었던 탓으로 그들이 國內에서나 海外에서 새로운 敎育機會를 가질 수 있었던 層으로 構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革命過程에서 그들의 氏族的 紐帶를 克服하지 못한 限——中國의 近代的 工業商業經營體가 그러하였듯이——傳統的 社會諸關係에서 規定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孫文의 革命은 結局 支配的 社會勢力 즉 鄕紳階級의 社會構造改編없이 成功한 執權에서 끝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同時에 中國에서는 經濟身分——農民勞動者및 企業——이 決코 自律的인 政治的 權利를 保有하지 못했다는 傳統을 繼承하는 일이었다. 이 點은 若干의 說明이 必要하다.

中國에서는 歷史的으로 農業以外의 生産活動은 모름지기 政府의 統制밑에 있었고 官吏에 의해서 管理되어 왔다.㊱ 19世紀의 80年代에 와서 太平天國亂의 經驗에서 政府管理밑에서 現代的인 工場이 設置되었다는 事實은 지적하였거니와 이미 1862年에 上海에 彈藥工場이 세워진 것이 工場으로서는 最初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大規模工場은 앞서 言及한 것처럼 官督商辦下에 編入되었고 私企業이 있었다 할지라도 一般的인 資本難으로 事業의 擴張은 不振하였거니와 비록 資本이 있었다 할지라도 課稅를 통한 傳統的인 政府介入을 두려워했던 탓으로 投資가 盛行하지 못했던 것이다. 1911～1928年 사이에 간신히 自由經濟가 싹트기는 했으나 戰爭(1937～1945)은 政府로 하여금 大規模工場을 또다시 國家管理下에 두게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戰時동안 生産技術의 後落性을 補充한다는 뜻에서 許容된 工業協同組織(C. I. C.)은 傳統的인 中國의 共同勞動樣式을 工業生産에까지 延長復興시키는 目的을 가지고 있었기 때

㊱ Chen Huan-chang, *The Economic Principles of Confucius and his School*, New York 1911, Ed. Ⅱ, S 402--405 참조

문에 이로서 中國의 工業勞動階級의 獨自的인 社會的基盤이 마련될 것으로 期待되기는 했으나 그나마도 戰爭期間동안 內陸에 移動해 있었던 政府가 戰後海岸地帶로 歸還할 때 이들을 內陸에 그냥 둔채로 돌아왔던 것이다.㊲ 이 事實은 政府當局이 協同主義的 勞動組織에 대해서 얼마나 無心했는가를 말하는 한 例에 不過하지마는 그것은 또한 政府가 經濟身分이 旣存社會構造속에서 職業的 協同權을 要求하게 되는 어떠한 組織運動도 妨害했다는㊳ 傳統的 態度의 表現에 不過하다. 歷史的으로는 버-제스가 지적하다시피 길드조차도 相互間 合意위에서 이루어지는 職業活動이라는 意識의 發生은 政府에 의해서 저지되어 왔던 것이다.㊴ 이와 같이 해서 中國 뿐만 아니라 東洋社會에서는 東洋的 古典的 부르죠아지의 發生이 他律的으로 制止되면서 維持되어 오던 것이었는데 이와같은 뜻에서는 近代的 政黨——國民黨과 共產黨——도 經濟身分階級의 協同的 權利를 抑制함으로서 經濟勢力이 政治勢力으로 登場하는 길을 막았다는데는 同一하다. 특히 共產黨은 언제나 勞動階級이라는 經濟身分과의 協同을 宣言해왔지마는 이와같은 協同的 態度는 다만 勞動組合의 政治的 活動領域안에서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結果는 勞動運動이 政治勢力의 代行組織活動밖에는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經濟身分의 政治化를 强要하는 方法이었고, 어느 때나 政治의 志向目標는 그 當時의 政治的 支配階級의 安全에 있었기 때문에 勞動運動은 獨自性을 가질수가 없었다.㊵

1927年에서부터 始作된 國民黨에 의한 共產黨彈壓은 共產黨을 都市에서 內陸地帶에로 避難케 함으로써 共產黨과 農民의 結合을 가져오게 했으나 그것은 共產黨과 都市勞動者層과의 連帶를 차단하는 結果를 가

㊲ Jacobs Norman, *The Origin of Modern Capitalis and Eastern Asia*, Hong Keng and Oxford Univ. Press, P.45—46 참조

㊳ Hsü Leonards., *Political Philosophy of Confucianism*, New York 1932, P.37—41 참조

㊴ Burgess, J. Stu., *The Gilds of Peking*, New York 1928, P.133ff

㊵ Chen Ta, The Labour Policy 中 結論部 參照 in : Epstein, *Israel Notes on Labour Problems in nationalist China*, with a supplement by L.L. Friedman, New York 1949, S.58—76

져왔다. 이 事實은 1923年에서부터 1929年 사이에만 五次에 걸쳐 赤色勞動者會議가 中國國內에서 開催되었을 뿐 第六次會議는 滿洲 할빈에서 열린 後로는 1948年까지는 會議가 召集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알수 있다.㊶

共産黨執權後에도 勞動運動의 政治的 自律性은 抑制되어 왔다. 1950年 6月의 勞動組合法에서 우선 組合活動은 黨의 統制밑에 있음이 規定되었고 같은 해 여름에는 罷業이 禁止되고 1951年 2月의 勞動保險을 위한 登錄制는 勞動者의 政治的 性分區別이라는 機能을 가짐으로써 政治化를 强要하는 結果를 가져왔다.㊶

反面에 企業家層의 政治的 統制도 이에 못지 않게 進行되었다. 1952年에는 우선 國家의 利益에 合當되는 條件에서만 私企業體와의 契約이 成立될 수 있다고 宣言된 以後로는㊷ 重工業의 80%, 輕工業의 40%, 海岸 및 楊子江邊의 全體船舶의 60% 그리고 外國貿易의 90%가 國家統制속에 들어갔고 全國의 모든 金融機關도 國家統制밑에 들어갔다.㊸ 그러나 이와같은 國家의 經濟統制는 國民黨政權當時와 比較해서 그리 큰 差가 없었다는 點은 注目할 바다. 그것은 經濟가 政治에 從屬되어 있었다는 한 實例가 될 것이다. 1940年까지만 해도 全國工業生産額中 政府所有企業의 그것은 15.2%였던 것이 1944年에는 35.9%로 上昇하고 1947年에는 42%를 차지한 것을 보면 共産黨執權後의 그것과 本質的인 差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事實은 또다시 最近에 와서도 中國社會에서는 權力層의 交替에도 不拘하고 支配機能 그 自體속에 工業에 대한 國家官僚에 의한 統制의 一連性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㊹

㊶ Red China's Working Class, China Viewpoints No. 1, 1955 Hongkong, P. 2—3

㊶ 同上. P. 4

㊷ New China's Economic Achievement, Peking, 1952, P. 26—27

㊸ 同上. P. 264—27[illegible]

㊹ Grossman, Bernhard,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der Volksrepublik China*, Stuttgart 1956, Ökonomische Studien Heft 6 P. 57—58

中國에서는 傳統的으로 工業과 商業은 有用한 것으로 認定되어 오기는 했지만는 執權者의 눈에는 그것이 獨立된 機能을 가진 것이어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어떠한 辯明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否定할 수 없는 社會經濟的 結果는 中國의 支配者들을 商業과 工業의 經濟身分의 獨自的인 協同權의 所有層으로 發展함으로써 現存支配構造에 變化를 가져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事實이다. 1954年까지는 全體工業生産額의 25%가 私企業에 의한 것이었는데 1年後에는 그것이 16%로 低落했고 1956年 1月末에는 단 2%로 되었다가 同年末에는 0.4%로 되고 私企業의 活動은 거의 消滅되었음을 알 수 있다⑮

結論： 傳統社會가 外部的刺戟에 의해서 近代化에의 過程에 들어갈 때 西歐社會에서는 우선 社會勢力의 交替過程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었지마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資本主義體制 確立過程이라는 한마디에 集約될 수 있었다. 反面에 中國을 爲始한 東洋의 非프로샤社會의 近代化는 資本主義體制 樹立過程을 模索하면서도 그 過程은 育成되어가는 새로운 階級의 낡은 支配階級에 대한 挑戰이라는 社會葛藤의 整理形式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近代化는 傳統的 支配勢力의 技術的 機能化라는 政治的 結果에 歸着하는 일이 許多했다. 中國의 近代化의 悲劇은 이와같은 技術的 機能化 過程을 西歐化 혹은 資本主義化라는 觀念속에서 維持해오면서도 이 〈近代化〉 過程의 擔當勢力은 傳統的 價値觀을 代表하는 傳統勢力이었다는 데 있었다. 그것은 錯覺의 近代化 觀念이었다.

西歐的 近代社會發展過程을 擔當할 수 있는 近代的 社會階級——부르죠아지——의 基盤없이 資本主義化하려던 中國의 近代化는 그의 最良의 形態라하여도 絶對主義와 重商主義의 混合物 以上의 것은 되지 못하였다. 西歐近世史가 가리키는 바로는 構造的으로 合理主義的 資本主義의 障害機能을 했던 이와같은 政治的 要素가 中國에서는 〈資本主義〉의 擔當

⑮ 同上. P. 59

役割을 하기 시작했다는 事實은 資本主義가 中國的 社會構造속에서는 虛僞資本主義의 誹謗을 免치 못하게 되었던 根本要因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와같은 背景에서 資本主義는 經濟制度이기 以前에 政治的 問題로서 知識人의 關心의 對象이 아닐 수가 없었다. 資本主義 아닌 것을 資本主義라고 誹謗해야 하였던 賃金勞動階級에게도 政治的 自律性이 許容되지 않았던 中國의 社會構造속에서는 階級이 있었다면 그것은 鄕紳과 農民의 두 階級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46]

近世以後의 社會發展史에서는 本質的으로 이러한 두개의 階級으로 形成된 社會가 어떠한 形態의 近代化過程을 遂行하는가 하는 前例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것은 中國뿐만 아니라 一般的으로 傳統社會가 解體됨으로써 새로운 統合의 求心力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데 未解決問題를 남겨 놓았던 것이다.

그것은 또한 政治的으로는 政治的 一連性을 維持하면서 近代化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政治的 斷絕 밑에서 이룩될 것인가 하는 問題로서 表現될 것이며, 社會學的으로는 特定한 既成階級——鄕紳과 農民중의——하나나 혹은 두개가 合해서 近代化라는 反傳統作業을 遂行할 수 있는 止揚志向的 成熟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의 問題로서도 提起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社會에서 近代化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定義規定의 問題가 남는다.

最近 數年間의 中國의 歷史는 이 모든 問題에 대해서 特有한 解決方法을 보여주었다. 그 社會學的 理由를 分析해보면

(1) 西歐資本主義와 日本의 帝國主義的 武力浸透는 地方層보다도 먼저 零細小作農民을 傳統的 安定에서 追出함으로써 社會的으로 原子化했다. 따라서 이들은 傳統과는 連結없는 새로운 삶의 準據基準에 대해서 가장 敏感하게 影響을 받을 수 있었다.

---

(46) Fei, Shiao-tung, China's Centry, Essays in Rural-Urban Relations The Univ of Chicago Press 1953, P.81—88 참조.

(2) 따라서 農民層은 이에 比例해서 反西歐資本主義的·反帝國主義的 心情의 所有層이 될수 있었다.

(3) 傳統的 階級構成의 急速한 崩壞는 階級移動이라는 階級間의 交替現象과 같은 部分的인 것이 아니고 總體的 性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各已階級은 그의 連續性을 喪失한 나머지 階級的 同質性이 에매해졌다.

(4) 이와같은 事情은 窮極에 있어서 새로운 價値體制에 대한 抵抗力을 表示할 수 있는 同質的 社會勢力構築을 不可能케함으로써 共産主義的 統一的 組織勢力이 優勢할 수 있는 素地를 마련했다.

(5) 共産主義理論을 理解할 수 있는 前提는 現代的 敎育이었던 탓으로 共産主義運動의 核心은 知識人으로 構成될 수 밖에 없었으나 그들이 狀況的으로 傳統的 社會紐帶에서 絶緣되었던 혹은 意識的으로 離脫했던 間에 이미 傳統과 斷絶됨으로써 共産主義的·統一的 組織속에서 自己同一性을 發見한다면 그것은 共産主義的 機能分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政治的 엘리뜨는 傳統과 絶緣한 知識人으로 構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反傳統勢力이 政治的 支配勢力으로 化했을 때 典型的으로 政治的 斷絶을 可能케한 實例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政治的 斷絶을 前提로 한 社會組織·生産組織·軍事組織의 再編을 이른바 〈社會主義〉化라는 슬로간 밑에서 行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1949年 以後에 中國은 그 時點에서 過去와의 連結을 斷絶한 채 始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近代化의 對象이 되어야 할 〈前近代的인 것〉에 대한 認定이 否定되어야 하고 따라서 近代化의 槪念構成의 前提도 없어지는 것이었다.

四. 韓國近代化의 諸問題

——知識人의 役割——

이미 說明된 바처럼 獨逸과 中國의 두 社會의 變化過程과 그 政治的 變遷은 그 本質的인 性格에 있어서 西歐社會와 東洋社會의 現代的 變化의 한 모델이 될수 있을 것이다. 獨逸의 경우는 文化的·經濟的으로는 典型的인 西歐的 特徵을 지니면서도 傳統的 支配勢力의 一連性이 유지되어 오던 時代나 一次大戰後 이 傳統的 支配勢力의 解體過程에서 登場한 全

體主義的 支配勢力의 執權過程이 西歐的 政治傳統과는 다른 方向으로 經營되면서 政治的 後進性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었으나 二次大戰後의 支配勢力의 眞空을 새로운 經濟勢力이 이를 充滿하면서부터 西歐的 政治傳統을 繼承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合理主義的 資本主義勢力이 社會運營의 中樞가 되면서 부터 政治的으로는 代議主義를 確立해가는 過程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獨逸에서는 資本主義勢力이 政治勢力에로 發展함으로써 政治的 後進性을 完全히 克服해가는 過程이었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中斷은 있었으나 經濟勢力의 政治勢力에로의 發展이 一貫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反面에 中國에서는 傳統的인 社會構造 즉 農民階級과 鄕紳階級과의 相反對立構造가 1949年까지 一貫해오면서 經濟身分의 政治的 自主權이 繼續制止되었고 二十世紀 以後의 半植民地的 政治方位는 農村과 都市의 分裂이라는 形式으로 傳統的 相反對立構造를 維持해 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過程은 一方에서는 農民階級으로 하여금 現代國家 擔當執權으로서의 素地에로 發展시키는 契機를 주지 못했고 同時에 鄕紳階級이 土地資本을 土台로해서 産業資本으로 化하기 前에 國際商業의 機構속에로 吸收됨으로써 政治的·經濟的 從屬地位에 轉落한 結果 現代社會의 階級으로서의 機能을 포기했던 것이다. 그 結果 어느 하나도 中國이 傳統社會에서 現代社會에로 轉換해가는 過程에서 主體的 役割을 遂行하지 못한 채로 다만 政治的 不連續性——共産主義的 統一機構에로의 止揚——을 통해서만 傳統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그것은 階級的 連續性이 斷絶되는 社會構造의 全般의 再改編을 의미하였고 組織面에서는 單項的 一律性을 基準으로 한 것이었고 政治的으로는 部分間의 利害關係를 否定하는 單項式代表制度였다. 한마디로 表現하자면 傳統的 社會階級은 統一的 共産主義에 대해서 自己를 主張할 수 있는 아무런 根據도 提示해 주지 못한 채 解體에서 출발으로써 政治的 新紀元을 세우는 것이었다.

獨逸과 中國의 現代的 變化는——이것을 近代化라는 한 말로서 表現하

기에는 難點이 많다. ——一面에서는 完全히 새로운 基準을 樹立함으로써 이루어지는 社會構造의 變動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差는 結局이 두社會속에 代議制度라는 政治制度를 擇함으로써, 비로소 自體發展을 期할 수 있는 自由競爭的 經濟勢力——부르조아지——이 發展해 있었나 없었나의 差에서 起因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두개의 相反되는 社會變動形態에 대해서 어떠한 位置를 지니고 있는가?

이 問題에 대해서는 우선 最近의 政治變遷을 一顧하면서 거기에서 提起되는 問題點을 社會學的으로 分析함으로써 回答의 一部分을 示唆할 수 있을 것이다.

1945年은 우리들에게 政治的 獨立의 可能性이 주어진 해였다. 그러나 그 獨立은 우리를 支配해왔던 日本과의 正面的인 政治鬪爭의 產物이었다기보다는 日本의 戰爭敗北라는 他律的·物理的 權力除去의 結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年은 韓國이라는 民族社會가 外國支配를 벗어나서 自律的인 現代國家에로 出發하는 始發點이었다. 國土兩斷이라는 事實은 이 自律性을 制限하기는 했지마는 그것은 國際權力關係의 現實이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政治的 獨立은 現代國家形成과 그 運營을 위한 必要不可缺한 條件이면서도 充分하고도 完全한 條件은 되지 못한다는 事實이 明白해졌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植民地的 社會經濟性格의 克服이 없었던 채 突然히 政治的 獨立만이 주어진 前近代的 社會構造와 그 機能이 近代化되지 못했던 데서 由來되는 現實的 逆機能을 말하는 것이지마는, 거기에는 具體的으로 建國當時의 政治的 엘리트의 社會性格과 構造的 連關性이 있는 것이었다.

植民地時代의 日本支配構造속에서는 韓國人의 政治勢力構成은 制度的

으로 不可能했기 때문에 民族的 政治勢力은 不得已 亡命이라는 길을 擇할수 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在外政治勢力과 國內社會勢力은 他律的으로 分離될 수 밖에 없었나. 政治的 獨立과 더불어 海外政治勢力은 歸國하였으나 政治的 獨立 그 自體가 他律的 産物이었던 事實만으로서도 還國政治勢力은 우선 旣成社會構造와는 獨立되는 上位에 位置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點은 初期政治勢力이 社會勢力의 基盤없이 移植된 强大國의 代行勢力의 性格을 지니게 된 根本理由가 되는 것이었으나, 同時에 그들은 輸入된 民主主義의 受荷人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韓國의 近代化가 政治制度面에서부터 始作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近代性〉의 總代理店이라는 觀念마저 낳게했다. 그러니까 韓國의 近代化는 西方的 政治制度는 非西方的 社會構造속에 移植하는 作業으로서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小數의 政治的 指導層에 의한 作業이었고 〈위에서부터의 革命〉의 性格을 지닌 近代化의 努力이기도 했다. 이와같은 近代化의 政治的 이니시아티브가 가져온 社會學的 諸結果는 무엇이었던가?

우선 近代化의 精神的 力源인 近代的 意識은 植民地時代에 있어서는 植民地統治機構의 中心地帶였고 政治的 獨立後에는 外國과의 接觸地點인 大都市·港口等에서부터 일어나기 始作했다. 그것은 "新思潮"라는 이름을 갖인 心的 適應을 말하는 것이었지마는 同時에 農民運動 勞動運動이 全的으로 禁止되어온 外國支配의 遺産이었다. 漸次로 歸還政治勢力은 傳統的 社會力學의 均衡을 破壞해 들어감으로서 새로운 勢力形成의 中心體가 되었다. 그것은 언제나 經濟的 外國依存性 때문에 새로운 經濟勢力의 形成이라는 實質的 內容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發展形式은 經濟活動이 近代化해가는 外樣을 보이고 있는 中에서도 政治·社會構造에 決定的인 相反對立構造를 자아내는 機制를 남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機制를 밑바닥으로 하고 있는 限 새로운 契約勞動層이 發生하여도 그것은 企業家層의 對立物이 되지 못하고 都市化現象이 急進하면서도

그것은 工業化의 結果가 아닌 다른 理由에서 초래되고 있고 代議制度가 樹立되어도 그것은 市民勢力의 擴大해 가는 政治的 要求의 表現機構로서의 役割을 수행하지 못하는 "原罪"를 남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人間의 모든 行爲가 죄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近代化"의 肯定的 側面도 나타난 것이다. 새로운 生産技術의 導入 敎育制度의 普及 새로운 都市生活에의 適應은 以前에 없었던 새로운 社會移動을 可能케 하였고 그 結果는 傳統的知識이 새로운 知識에 의해서 代置되었다. 그것은 價値觀의 變化를 말한다.

그러나 새로운 價値觀은 낡은 傳統的 價値觀을 批判하고 對立하면서 出現되기는 했지마는 그것은 社會勢力의 葛藤의 結果라기보다 敎育의 所産이었다. 따라서 新舊의 對立은 階級間의 對立現象이라기보다는 世代間의 態度差인 것이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傳統社會의 解體過程은 階級分化過程이라기보다는 各階層內部의 同時的인 弛緩現象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政治的으로는 이와같은 階層弛緩現象은 移植된 政治的 支配勢力의 社會的 立脚地를 提供하였다. 낡은 價値觀이 衰退해 가면서 새로운 價値觀을 經驗的으로 體得하지 못한 轉換期에서는 指導者의 個人的 카리스마가 政治的 行動基準이 될 수도 있다. 李承晩 前大統領은 政治的 近代化의 化身이면서도 國會에 대한 壓力을 大衆運動이라는 形式을 통해서 遂行할 수 밖에 없었다는 事實은 國會라는 代議制度가 李博士의 個人카리스마에 의해서 操縱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47] 그것은 政治的近代化가 制度化되기 以前의 混亂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戰爭에서 오는 强制性과 個人카리스마에 立脚한 統治方法은 社會階層의 全般的인 再編成을 초래하기보다는 傳統的 紐帶에서 離脫한 知識分子의 兩分化現象을 가져오는 結果를 냈다. 그것은 機能的 知識分子와 政治的 知識分子의 兩

㊼ 尹天柱, 權威主義的權力操縱과 政黨形成, 高麗大學校 附設 亞細亞問題硏究所刊 "亞細亞硏究" 1961年 12月號 P.80上

分現象이라고 말할 수 있는 非傳統勢力의 自己分裂現象인 것이다.[48]

社會階層이 職業機能에 따라서 分化하지 못한 後進國에서는 知識分子의 兩分化가 政治的 決定에 重要한 影響을 미친다는 것은 二次大戰 以後의 新生國家의 一般的 現象이다. 그러면서도 韓國의 知識分子가 機能的 知識分子와 政治的 知識分子로 區分되지 않으면 안되는 理由는 韓國의 近代化問題를 어떠한 態度에서 보는가 하는 知的 志向性이 政治的 決定과 直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基本的으로는 韓國에서는 어느 特定한 社會 階層勢力이 韓國의 近代化의 擔當勢力이 될 수 있다는 確信을 얻기 어려운 社會發展樣相의 結論에서 由來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問題에 대한 焦點을 좁혀 아래와 같은 몇가지 點에 限定하기로 한다.

(1) 機能的 知識分子와 政治的 知識分子의 區別은 무엇이며 그들의 價値判斷의 基準은 무엇인가.

(2) 韓國의 社會學的 諸現實은 知識人의 兩分現象속에서 어떠한 變化志向을 設定할 것인가.

(3) 韓國의 近代化의 性格은 어떻게 될 것인가.

(1) 外國統治에서의 解放과 傳統的 價値의 解體는 後進國에서는 새로운 價値所有集團 그 自體가 國家라는 樣相을 띤다. 그리고 그들은 現代教育의 産物인 知識人이지마는 韓國의 知識人의 社會的 性分은 起源的으로는 地主라는 物質的 基盤 위에서 可能했던 教育이라는 資格을 갖는 者였고, 이러한 資格은 行政 司法등의 官僚機構의 成分이 될수 있는 基準이었다는 事實[49]은 知識人의 많은 部分은 주어진 社會構造속에서의 機能分子가 되는 端緒가 되는 것이었다. 外國統治와 移植政治勢力下의 行政運營은 이러한 知識人에 의해서 擔當되었고 그들이 行政運營을 遂行

[48] Fatma Mansur, Process of Independence, International Library of Sociology 1962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後進國의 知識人은 우선 政府樹立의 技術者로서 權能的이다. chap. Ⅳ 참조.

[49] 金泳謨, 韓國社會의 經濟的 Elite의 形成過程(碩士學位論文, 1962, 서울大學校)P. 52—53

하는 役割者인 以上에는 주어진 統治機構는 階位的인 秩序意識에서 把握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거기에서는 上下의 連續性이 認定되어야 하고 斷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機能的 知識分子의 役割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政府組織法에 의한 階位的 役割分割 속에 編入됨으로서 存在價値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政治的 性格은 政權에 의해서 基本的으로 規定되어 왔다. 그러니까 機能的 知識分子는 언제나 一定한 政體속에서는 保守的 性格을 지닐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反面에 政治的 知識分子는 行政 司法機構 밖에서 存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關心은 機構의 運營機能面 보다는 政府組織의 性格과 方向에 쏠린다. 따라서 그들의 準據基準은 現行政府組織法에서 주어지기보다는 그들의 經驗하지 못한 政治的 理念에서 設定될 수가 많다. 이와같은 態度는 政治的으로 政府를 自己들의 對立物로서 看取하는 傾向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政治的 葛藤의 씨를 뿌리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反政府的 志向을 보인다. 이와 같은 知識人의 態度分裂은 傳統的인 與野의 政爭의 次元을 벗어난 다른 局面을 展開하는 要因이 된다. 그것은 知識人의 現實志向性과 現實止揚性向과의 葛藤인 것이다.

(2) 社會學的 諸事實

A. 過去半世紀 동안 工業化와 都市化가 現象化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一般的으로 믿어지고 있는 바와는 달리 韓國의 家族形態에는 本質的인 變化를 볼 수 없는 것이다. 한가지 例로서 全國平均의 韓國家族의 크기는 1925年에서부터 시작하여 1962年에 이르기까지 5.24名에서 5.79名으로 增加했음을 보이고 있다.[50] 大家族制度에서 부터 核家族에로의 分化라는 이른바 家族形態의 現代化란 이 社會에서는 該當되지 않은 事實이지마는 그것은 傳統的 家族忠誠의 根據가 現存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人間의 價値基準이 地域的으로 歸屬될 수 있다는 有力한 證據가

---

⑤⓪ 盧昌燮, 韓國都市地域社會의 硏究, 韓國生活科學硏究院 叢書 1. P.56의 表1—19에서

된다. 왜냐하면 傳統的 家族이란 元來 土着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門閥主義와 地方主義는 合理的 判斷이나 共通的 行動基準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源泉的인 障害가 되고 있음은 여기서 새삼 지적할 必要가 없거니와 다만 都市와 農村에 있어서의 家族構成의 若干의 差 즉 都市平均 5.04名과 農村平均 5.37名(서울은 4.97名)에서 暗示되는 바처럼 地域的 職業的 差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都市의 小家族化 傾向은 오히려 念的인 面과 傳統規規定的 行動樣式 사이에 크나큰 不均衡의 原因을 이룬다고 있는 面이 많다.[51]

B. 社會經濟的 發達의 尺度는 都市中產階級의 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 一般的인 態度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都市中產階級의 構成要素는 基本的으로는 土地資本이 商業金融 및 高利貸資本으로 化한 그 所有層과 動亂後의 經濟的 變動속에서 商業活動을 통해서 蓄財한 層으로 되어 있고 이른바 專門職層은 이들의 副產物인 것이다. 따라서 都市中產層이 그들의 客觀的 特徵을 나타내기까지에는 아직도 過渡期的 混亂이 어느 程度 繼續되어 갈 것으로 보여지나 一部 都市住民들이 自己들의 生活水準을 中流와 同一視하고 있는 百分比가 38%로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은 主觀的 自己評價의 範圍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면서도 韓國的 都市中產階層의 樣態를 推想케 하고 있다. 그러나 反面에 上流가 3.1% 下流가 58.3%로 나타나고 있는 對照는 調査對象地의 地域的 特徵에도 불구하고 經濟的으로 自己를 貧富 어느 側에도 歸屬시킬만큼 確信을 가지지 못할 때 自己를 "中流"하고 同一視하는 事實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階級으로서의 未熟度를 보이고 있는 것이 都市의 中間階層이다. 그러니까 韓國의 都市中間 階層은 人口構成面에서는 農村人口의 移動에서 이루어짐으로서 그만큼 傳統的 生活樣式에서 벗어나면서도 새로운 職業과 價値觀에 根據를 둘만큼 質的 變化를 하지 못하고 있는 浮動

---

[51] 崔在錫, 韓國家族의 近代化過程, 李相佰博士回甲紀念論叢 1964. 乙酉文化社 P. 150, 166

層인 것이다. 따라서 階級構成의 現象이 있다면 貧富의 兩極에서 다만 象徵的으로 結晶해 들어가는 徵候가 있을 뿐 兩極의 中間에는 아직도 浮動體로 充滿되어 있는 狀態라고 할 수 있다.

西歐社會에서는 貧農層과 勞動層을 一團으로 하는 社會集團과 大商人과 專門職 및 管理人層을 一團으로 社會集團間의 對立이 顯現的이지마는 韓國에서는 이와 같은 職業集團間의 對立은 그리 强하지 못하다. 그러나 社會階層間의 對立이 强하게 表現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理由는 西歐社會와는 달리 職業集團의 利益을 自律的으로 代辯하는 組織의 機能이 없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結局 이와 같은 狀態는 社會構造의 機能的 未分化에 그 原因이 있기는 하지마는 都市住民의 경우 그들은 一般的으로 現狀維持的이며 社會改革에 있어서 保守的·消極的인 態度를 보이면서도 階層의 上下에 따라 體制肯定 혹은 否定의 態度에 相關性이 있다는 暗示는 얻을 수 있는 것이다.[53]

社會構造의 機能的 未分化는 外國에 比해서 職業移動의 緩慢性이라는 結果로서 나타나는 것이었으나[54] 이 事實은 社會階層間의 疎外가 職業集團間의 葛藤을 制度的으로 調整하는 機能을 發展시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 事實은 一般選擧制度와 같은 政治制度의 實施로 말미암아 階層間의 疎外가 突然 政治的 態度에로 轉換되는 素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韓國의 政黨機能은 이와 같은 可能性을 增大시키는 여러 條件을 만들어 내는 것도 否認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可能性은 極端의 經濟的 不平等이 緩和되지 않은 限 減少하지 않을 것이다. 制度化된 階級葛藤調整의 傳統도 없고 勞動組合이나 團體協約의 基本構造의 脆弱한 發達相은 先進社會에 있어서의 階級葛藤의 性格보다도 더 過激한 葛藤相을 豫想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制度的

㊷ 盧昌燮, 上揭書 P.92의 表 2—5에서

㊸ 高永復, 都市人의 社會的態度硏究, 社會學論叢 第1輯 1964. P.77. 表11 및 12 참조.

㊹ 金彩潤, 世代內에 있어서의 職業移動에 관한 一考察, 李相佰博士 回甲紀念論叢 1964. P.313, 319

未發達은 그만큼 "政治的 解決"에 階級葛藤을 委任하기 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都市와 農村과의 分裂은 우선 무엇보다도 現代的 職業分布의 偏重에서 由來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過去에 있어서 官職이 都市에만 偏重하고 있었다는 傳統的 懸隔의 本質的 持續이면서도 그 懸隔을 더욱 擴大시키고 있는 것은 敎育받은 中間浮動層이 壓倒的으로 都市에 集中하고 말았다는 事實이다. 社會全般의 均衡的 變化가 近代化의 理想型이라고 할 것같으면 中間層의 都市集中은 農村을 近代化의 圈外에 두게 되는 結果가 되는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課題로서 登場해야 할 것은 必然的인 일이다.

C. 우리가 單一母語를 가지고 있다는 事實은 몇몇 後進社會가 近代化해가는데 있어서 여러 言語群의 葛藤으로 얼마나 統一的인 作業이 支障을 받고 있는가 하는 實情에 比하면 極히 多幸스럽게 여기면서 우리 歷史에 感謝하는 바이지마는 이 點에서는 우리는 일찍부터 現代國家成立의 要因의 하나는 確保된 셈이다. 그러나 敎育構造는 義務敎育을 除外하고는 奬學制度가 發達되어 있지 못한 關係로 就學機會는 家庭收入과 直接關聯되고 있다. 이 事實은 文盲에서 提起되는 問題하기보다도 高等敎育을 받은 者와 그렇지 않은 者間의 社會成層差 따라서 社會的 認定差와 關聯되는 問題로서 精神的으로나 制度的으로나 高等敎育을 받지 않은 集團이 보여주는 現實疎外現象——이 경우는 傳統依存度의 强化——은 反進步要素 즉 反現代要素가 될 수 있다.

反面에 高等敎育 過程을 밟은 知識人은 西洋的 普遍價値에 立脚한 價値觀과 行動樣式의 所有者이지마는 그들이 가진 "合理性"은 傳統的 環境 속에서는 孤立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政治生活에 있어서의 그들의 決定的인 役割은 그들의 孤立을 解消하는 契機가 된다. 그들은 貧困과 不平等과 不正이 顯在하는 環境속에서 敎育을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特別하게 政治志向的 傾向을 가지게 된다. 社會의 未分化狀態는

現代的 職業構造의 確立을 促進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知識人의 社會的 機能化를 위한 社會的 機會도 保障되지 않고해서 知識人의 社會疎外는 構造的인 固疾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國家의 經濟發展만이 모든 後進性을 克服하는 基本要件이라는 것을 認識하고 있다. 그들의 社會的 疎外가 繼續되면 될수록 그들의 經濟的 發展計劃은 必然的으로 政治的 過激性에로 轉移되는 것이다.

小數派를 構成하는 機能的 知識人 以外에는 많은 知識人은 黨派와는 關係가 없는 超黨的 國事行動——理念活動——에로 쏠리게 되고 따라서 結果的으로는 反現實政治的 態度를 취하게 된다. 執權者와 政黨指導者에 대한 不信의 根據는 여기에서 깃들기 시작하는 것이지마는 그것은 知識人의 本性에서도 起因한다. 따라서 그들은 現存指導勢力과 不可避하게 關聯되어 있는 大衆媒介體를 通한 輿論보다는 自己들의 써클內의 意見을 尊重하는 傾向을 보인다. 그들의 意見은 理念論理的으로는 構造性을 가질 수 있으나 政治經濟的 現實에 대해서는 構成的 志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現實疎外를 한다. 疎外되지 않은 部分이 露出되는 機會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野黨이라는 規定을 지우는 機會밖에 되지 않으며 非民主的이라는 非謗의 口實이 되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反社會性"은 오히려 그들에게 强要되는 支配構造의 產物일 수가 많다.

事態를 더욱 惡化시키는 것은 知識人自體가 가지는 欲求不滿的 神經性이다. 浪漫主義的 農村運動이나 自己消耗的 文學活動은 이러한 狀態의 한 表現이기도 하지마는 그것은 때로는 政治的 目的을 위한 農民 혹은 大衆에 대한 媚態로 變할 수도 있고, 가장 時代錯誤的인 것은 거의 迷信的인 傳統主義者로 突變하는 일이다. 그것은 또한 後進國 知識人運動에서 때때로 볼 수 있는 民衆主義(populism)의 一般的 性格에서도 말할 수 있으나 萬若에 이것이 知識人의 마음 속 깊히 감추어지고 있는 特權意識의 歪曲된 表現일 때는 그 運動은 政治的으로는 周邊運動에서 끝나

는 것은 一般的 傾向이다.

韓國知識人의 知的 性向의 二重性 즉 一方에서는 民衆主義를 志向하면서 他方에서는 外來的인 것에 대한 反射的 受納態度는 知識人의 構造的 失業과 더부러 政治的 反抗의 傳統을 만들어 내는 素地도 된다. 韓國의 知識人의 典型的인 相反對立的 社會認識態度의 根據는 여기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政治的 反抗性에는 憎惡가 混入되어 있다. 그러나 政治的 知識人의 現實에 대한 反應은 다른 形態로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다른 形態의 現實疎外인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間接的 表現方法으로서 韓國의 知識人의 現實疎外를 投影해 보기 위해서 獨逸知識人의 一連의 反應形態를 보기로만 하겠다. F.스터언은 비스말크時代의 知識人의 政治에 대한 態度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1871年 以後에도 少數學者들은 그들이 優待를 받고 있으면서 帝王獨逸에 대해서는 批判的으로 對하고 있었고 獨逸이 西方의 政治制度를 導入할 것을 希望하였던 것이다. 그것보다도 더 數가 많은 一團의 學者들은 政治的 領域이라고 불리워지는 일에서 물러서서 그들의 政治的 無力을 諦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큰 一團의 學者들은 現存獨逸과 그 帝國主義的 傳統을 理想化함으로서 西方에 優越하는 獨逸文化로 하여금 獨逸의 權力도 合理化할 수 있을 것이라고 主張했던 것이다.」[55] 그러나 다렌돈프에 의하면 1871年 以前부터 獨逸知識人의 典型를 괴테, 헬다—린, 하이네의 三人에 의해서 代表되는 세 가지의 態度에 따라서 區分할 수 있다고 하고 우선 괴테를 國家權力과 結合한 保守主義 타이프의 代表型이라고 規定하고 그 後繼者로서 프로샤主義者인 트라이츠케(Treitschke)와 힛트러主義者인 하이데거—(Heidegger)를 들면서 獨逸知識人의 傳統的인 國家權力의 承認과 여기서 엿보이는 無批判的 知能을 지적하고 있다.

---

[55] F. Stern, Germany and the West–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Unpolitical German. 1957年의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에서의 講演文에서

두번째의 態度로서는 「世界의 破綻이 나에게 무슨 相關이 있느냐」고 한 헬다—린 속에서 본다고 한다. 그것은 그의 精神的 孤島以外에는 아무 것에도 關心을 表示하지 않은 이른바 "內的移民"(innere Emigration)의 態度인 바 그는 時代와 社會에서 後退하여 精神的 安全世界에로 도피하는 形態인 것이다. 그러한 態度는 非政治的인 것이다. 性格上의 理由에서 이와 같은 非政治性을 지닐 수도 있겠으나 必然的인 結果로서 그의 沈默은 權力層에 有利한 政治的 結果를 가져오는 것이다. 짤라서 말하자면 內的移民은 批判과 抗議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다.

세번째로서는 文字 그대로 "外的移民"의 態度를 말한다. 하이네나 토마스·만이 이에 屬하지마는 國家와 社會에 대한 그들의 批判은 禁止되는 것은 勿論 그들 自己도 外國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었다. 警察의 彈壓만이 그들의 外的 移民의 唯一한 根據라고 말할 수 없다. 批判을 통해서는 더 以上 旣存的인 것의 變化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確實해지는 瞬間부터 外的 移民은 시작되는 것이다. 하이네는 出國命令을 받기 前에 이미 出國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하고 있다[56] 여기에서 說明된 獨逸知識人의 態度가 서로 差異를 보이면서도 그들의 態度에서 共通되는 것은 政治的인 效果에 있어서 1945年까지 權威主義的·全體主義的 社會政治勢力의 强化에 이바지하는 結果를 가져왔다는 點이다.

萬若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은 獨逸 知識人의 세 態度區分이 現在의 韓國知識人의 態度分類에 대해서 象徵的 關聯性이 있다면 그것은 知識人의 一般的 政治的 受動性에서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歷史的으로는 獨逸과 韓國의 差는 獨逸에서는 政體의 性格如何를 莫論하고 오랫동안 主權을 維持해 왔고 우리들은 主權을 喪失했던 時代를 가졌다는 點인 것이다. 이 點은 知識人·學生이 三·一運動 以來로 보였던 外國支配에 대한 特殊한 排他感情은 싫든 좋든 間에 政治化의 動機가 될수 밖

---

56 Ralf Dahrendorf, Demokratie und Sozialstruktur in Deutschland, in : *Gesellschaft und Freiheit*, München 1962 P. 288—291

에 없었다는 傳統을 만들게 했던 것이다. 그 傳統은 解放後 政治的 獨立을 얻은 뒤에도 歷史的 回顧主義와 더불어 育成되어 오는 동안 四·一九를 契機로 知識人의 政治意識에 새로운 轉機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다름아닌 知識人의 現實參與라는 問題였고 具體的으로는 政黨政治에의 志向을 의미하였다. 知識人의 現實參與意識은 一種의 社會心理에로 定形化함으로서 現實逃避는 때때로 거기에 該當된다고 생각되는 本人의 良心의 苛責꺼리가 되기도 한다.

政治的이라야 한다는 知識人의 責任意識은 새로운 意味에서 現實的인 政府擔當勢力 및 現存 政黨指導勢力에 대한 不信感의 動機가 된다. 政治的 知識人의 類型設定이 이 瞬間에서부터 새로운 뜻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政治的 知識人 사이에 一般的으로 볼 수 있는 浪漫主義的 總體否定的 政治態度는 現實的으로는 幻滅的 政治不信態度와 通하게 된다. 이러한 實態는 日帝時代에 있어서의 民族主義運動이 知識과 教養과 若干의 資本을 가진 知識人——따라서 여러가지 의미에 있어서 傳統의 惠澤을 받고 있었던 層——의 獨占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教育을 받은 젊은 世代와는 分裂되어야한 條件이 成熟되지 안했던 것이었으나 政治的 獨立後에는 傳統的 民族主義勢力은 外來政治勢力과 結合해서 政權遂行에 參加하여 支配的 地位를 유지하게 되는 때부터 젊은 知識人과는 距離가 멀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E. 쉴스[67]가 新生諸國의 있어서의 知識人의 政治的 態度에는 "示威的이며 抗議的"(demonstrative and remonstrative)인 傳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옳은 觀察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다름이니라 바로 政治的 知識人의 特徵에 해당하는 말인 것이다.

D. 軍隊組織처럼 明白하게 政治的 獨立을 表現하는 制度는 없었다. 그것은 二次大戰 동안에 韓國青年들이 戰爭의 經驗을 가지지 못했다는

---

(67) Edward Shils,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States, in :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960 April Vol. II No. 3, P. 284

뜻에서가 아니고 軍隊運營을 主體的으로 遂行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六·二五動亂으로 軍隊가 主動的 役割을 해야했던 時代는 國家에 있어서의 軍隊의 地位를 다른 어느 것보다도 上位에 두게하였다. 그러나 軍部首腦部의 많은 部分의 前時代의 外國國隊의 下級將校에서 構成될 수 밖에 없었다는 歷史的 事實보다는 여기서는 現代的 組織과 裝備를 가진 軍隊의 存在가 韓國의 現代化에 대해서 어떠한 政治社會的 뜻을 가지는가 하는 點이다. 우선 軍隊는 軍律이라는 完全히 새로운 價値觀에 立脚한 精神 및 技術團體이므로 다른 어느 社會集團보다 內的 紐帶가 强하다. 어느 面에서는 이 內的 紐帶의 지나친 强調는 社會的 遊離에서 可能하지마는 反面에 軍隊는 어느 敎育機關보다도 大量의 工學技術習得者를 產出해 낸다는 事實은 社會의 近代化에 적지 않은 役割을 한다.

軍隊維持費가 國民經濟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는 여기서 論할바는 아니로되 軍隊의 政治的 役割과 社會的 役割만을 略述하자면, 우선 軍隊라는 存在는 政治的으로는 禁忌領域을 形成하고 있어서 三權分立이 正常機能을 發揮할 때라 할지라도 이 部分만은 政治的 租界地域取扱을 받으면서도 일단 三權分立이 否認되면 禁忌領域은 無限擴大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後進國에는 民主主義는 軍隊의 恩寵이 베풀어지는 限에 있어서 存在할 수 있다는 印象까지 남기고 있다. 軍隊는 實로 「레비아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社會的으로는 軍隊의 市民訓練의 機能을 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軍隊組織만큼 傳統的·文化的·地域的·敎育的 差에 구애됨이 없이 社會의 各層에서 異質的 性分을 統一機構를 통해서 一定한 形態로 人間形成을 하는 機構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通해서 國家라는 普遍槪念도 敎育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또한 政治的 行動에 있어서도 市民이라는 共通觀念을 가질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後進國家에서는 工業化와 軍隊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傳統에서 解脫시키고 새로운 一般價値대로 인도해 가는 大衆機能을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E. 韓國에서는 아마도 新聞은 知識人의 가장 重要한 現實參與의 制度일 것이다. 그리고 新聞은 大概의 경우 政治的 知識人의 社會的 機能을 可能케하는 唯一한 制度이기도 하다. 따라서 新聞이 示威的이며 抗議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은 몇몇 新聞의 日帝時代부터의 政治的 知識人과의 關係에서 表現되는 事實이다. 이 關係는 新聞發行者와 編輯人들이 現存政治的·經濟的 支配層의 影響圈內에 있을 수 있다는 可能性에도 불구하고 維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新聞의 商業的 存在基盤은 輿論이고 輿論의 中樞는 政治的 知識人이 構成하기 때문이다. 新聞의 經營이나 論調의 分裂은 事實上 新聞 世界內部의 緊張의 構造的 原因이 되고 있다. 그러나 新聞傭傭人의 勞動組合活動이 制度的으로 確立되지 않은 限 이와같은 緊張은 新聞界의 構造變化의 動機가 되기에는 時期尙早라 하겠다.

五. 問題提起

패트마·만술女史는 그의 植民地 諸國의 獨立過程의 政治社會學的 考察에 있어서(印度·파키스탄·인도네지아·가—나의 경우)[58] 獨立後의 支配體制確立 過程에서 아래와 같은 네가지의 特徵을 밝히고 있다.

(1) 獨立後의 最高政治勢力은 그 自身을 國家單位와 政治理念에로 同一視함으로서 事實上 排他的인 支配體制를 樹立하는 것이었으나 일단 그들이 사라지는 瞬間에는 政治的 空間을 채울 黨勢力의 缺如때문에 軍事統治가 이러날 수 있는 條件을 마련하는 수가 있다.

(2) 旣成政體內에 이미 深刻한 不滿이 內包된 채 統治가 始作되기는 하나 이미 많은 사람들은 旣成政治構造로서는 獨立을 維持하고 國家再建을 이룩할 수 없다는 不信感이 一般일 수가 있다.

(3) 議會制度가 樹立되어서도 代議員이나 選擧人은 行政에서 疎外됨으로서 그들의 政治的 行動과 國家目的에 無關聯이 露出된다. 따라서 現存政治制度에 대한 疎外를 結果해 낼 수가 있다.

---

[58] Fatma mansur, 上揭書, 結論部 참조.

(4) 따라서 軍事支配·週期的 暴力行使·警察統治·民間暴力集團支配의 形式으로 政權이 維持되는 경우가 發生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事實은 根本的으로는 西歐政治制度가 아무런 社會的 整備가 없었던 곳에 移植됨으로써 이야기되는 政治的 結果다. 그러니까 이와같은 政治的 結果는 社會學的 素地의 政治的 表現일 뿐이다. 이 點은 바로 우리의 現代化作業에서도 直面하는 課題임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建國初期 政治的 指導者가 發揮했던 個人카리스마의 傳統의 歷史는 國父라는 심볼 밑에서 植民地歷史보다도 더 오랜 歷史的 一連性을 維持해왔다. 그것은 政體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繼續하는 前近代的 政治心情을 말하는 것이지마는 이것이 獨立後의 合理的 政治制度 속에서 不可侵의 權威로서 確保되었을 때부터 政治的 近代化는 큰 瘤을 지니고 出發하는 것이었다. 大衆의 政治參與가 政治的 西歐化의 不可避한 屬性으로 생각되었던 一般選擧制度로서만 許容된다면 大衆은 個人 카리스마를 合法化하는 宣傳과 組織의 對象的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反面에 民主主義看板 밑에서는 不得已하였던 複數政黨制는 때로는 個人카리스마의 權威를 直接損傷하는 制度的 保障이 되기 때문에 個人카리스마는 더욱 大衆主義에로 發展해서 國會에서 第一黨을 유지하게 된다. 「農民과 勞動者의 黨」으로서 出發했던 自由黨에 보였던 二重機能——國會에서의 多數派 維持와 大衆動員 能力——은 비스말크가 一般選擧를 暗示하는 大衆主義를 통해서 國會에서의 反對勢力을 누렀던 것과 같이 그것은 初期 最高 政治指導者의 國家에 대한 自己同一化 態度에서 오는 直接的 政治的 結果였다.

李博士가 還國政治勢力의 代表者였다는 點은 自由黨이 非土着勢力 따라서 非傳統勢力中의 比較的 流動的인 要素를 幹部陣으로 構成할 수 있었던 理由가 되지마는 그것은 同時에 土地勢力을 除外한 商業經濟勢力도 自由黨의 支持勢力으로 登場하는 機會가 되었다. 그러나 土地改革의 意識的인 失敗는 土地資本을 商業勢力下에 두게한 結果를 내게 함으로

서 自由黨의 政治的 機能은 解放前의 支配體制로 還元하는 役割을 했다. 日帝時代부터 官僚機構속에 있었던 機能的 知識人의 機能的 連續性은 이를 도운 것은 事實이다.

四·一九는 個人 카리스마의 前近世化에 일단의 制動的 役割을 하였으나 그後의 政治·經濟·社會의 混亂은 民主黨 政府가 國民에게 選擇方向(alternative)를 주지 못한 채 五·一六이 된 것이다. 그것은 만술女史가 말하는 여러가지 特徵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政治制度로서의 民主主義는 西洋의 政治理論家들이 디자인 한 뜻과는 달리 이나라에서는 近代化에 逆機能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政治制度는 社會的 眞空속에서 發展할 수는 없다. 政治制度의 發展은 社會諸關係에 의해서 심히 影響을 받는 것이다. 近代化의 問題點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觀點은 이 論文의 主題가 되어 있지마는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두가지 社會學的 問題提示가 必要하다. 그것은

(1) 우리나라의 民主政治의 逆機能은 어떠한 程度에 있어서의 社會諸關係의 解體와 變化를 가져왔는가.

(2) 이러한 解體와 變化속에서도 새로운 次元——近代化——을 위한 社會의 再組織을 위한 새로운 志向을 도우는 要素가 發生해 있는가.

여러가지의 斷面에서 볼때 確實히 解體過程에 對해 있는 것도 있고 反面에 새로운 形成化過程을 보이고 있는 面이 있지마는 여기서는 우선 現代的 社會形成 특히 傳統的인 體制가 現代的 社會形成體로 調整되어 가는 데 가장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領域을 問題로 삼고저 한다.

S.N. 아이젠스탓트[59]는 後進社會의 重要한 再統合의 問題領域을 네가

---

[59] Samuel N. Eisenstadt가 UNESCO主催下에서 1959年 12月 1日부터 12日 사이에 아테네에서 열린 Seminar on the Contribution of Social Sciences to Economic Development에서의 講演文 : Soziale Entwicklung and Politische Stabilität in Nicht-Westlichen Gesellschaften, in :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and Sozial Psychologie*, 12 Jahrgang Bd. 2 P. 198ff

지로 보고 있다.

첫째 領域은 普遍主義的 原理에 따라서 形成되고 있고 또 政治的 發展을 위한 出發點 혹은 準據基準이 되고 있는 各種의 基本的인 制度的 規定과 方向이 設定되어 있는가 없는가 하는 問題領域이며

둘째로서 첫째의 것과 密接하게 關係되고 있기는 하나 經濟發展의 速度및 方向과 새로운 經濟中心體의 形成의 問題領域이다. 그런데 여기서 考慮되어야 할 것은 經濟發展은 말할 必要도 없이 政治的 安定性을 위한基本前提가 되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充分한 條件은 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經濟發展中에서도 特別한 樣面이 考慮되어야 할 理由가 있는 것이다.

세째로는 現代的인 社會·文化諸力의 發展 특히 現代的 에리트와 現代的 심볼의 發展의 問題, 그리고 이들이 社會의 傳統的인 部分에 대해서 어떠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問題이며

네째로는 後進國의 特有한 不均衡과 發展의 不調를 調整해주지 못하는 所謂開發計劃과 關係되는 여러가지 問題領域인데 여기서는 그의 問題領域에 따라서 우리의 社會學的 諸關係가 어떠한 解體와 統合의 契機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同時에 우리의 近代化問題의 集點의 所在가 어디에 있는가를 暗示하고자 한다.

첫째의 領域으로서는 무엇보다도 行政과 法制의 傳統을 들수 밖에 없다. 逆說的인 것으로 보일른지는 모르나 우리나라와 같이 直接的인 外國統治의 歷史를 가진 나라에서는 間接統治를 받은 나라에 比해서 行政法曹機構는 解體過程를 겪지 않고 比較的 原形態대로 獨立政府에 移讓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可能했던 것도 日本支配나 美軍政을 通해서 많은 韓國人이 이 機構運營을 위한 訓練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政體變化마다 解體의 外樣을 보이면서도 內實的으로는 傳統을 維持할 수 있었던 代表的인 領域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領域은 主로 機能的 知識人의 領域이었다.

두번째의 領域은 經濟發展의 問題인바 우리나라 [經濟는 政治的 獨立 以後에도 철두철미 外援內至依存經濟의 構造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農業經濟와 中小獨立企業의 廣範圍한 崩壞를 면치 못했고 直接的인 그 結果로 現代的·自主的 政治體制의 効率的 機能이 保障되지 안했던 것이다. 이點은 우리 社會의 政治的 不安定의 固疾로 化한 것도 오래이지마는 政治的 不機能은 經濟政策樹立과 그 運營에 있어서의 國家의 領導的 役割을 쉽사리 小數人의 손아귀속에 經濟的 獨占을 集中케 한 結果를 가져왔다. 이 點은 合理的 資本主義發達를 基本的으로 歪曲한 動機가 되지마는 同時에 이와같이 해서 形成된 "政治的 資本主義"(M. Weber)는 行政機構가 가지는 政治的 傳統性속에 吸收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였다. 그러니까 새로운 經濟勢力이 國家權力 밑에서 形成되더라도 그것은 古典的 불죠아지의 價値觀과 行動體系를 가지는 것이 되지 못하고 單純한 政權의 屬性으로 轉落하고 마는 것이었고 따라서 經濟勢力의 自律性은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理由로 經濟勢力은 政治的으로는 이 나라에서 再統合의 基本勢力이 될 수 있는 可能性은 稀薄하다. 그 反面에 工業發達 그 自體는 政體如何에 關係없이 技術的인 面에서 多少間 社會의 旣存秩序의 解體와 再統合에 影響를 미친다는 事實은 아래와 같은 세가지 點에서 注目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經濟勢力은 政治的 態度에 있어서는 傳統을 固守하면서도 企業運營技術面에서는 傳統的 態度를 脫皮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둘째로는 이들은 技術者·專門家를 大量必要로하고 있고 또 工場의 地方分散의 必要性 때문에 이들을 地方에 分散시키므로서 文化의 地方分散 뿐만 아니라 工場所在地의 傳統的 社會關係에도 變化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 그리고 세번째로는 工場設置로 因한 人口移動의 關係를 如何히 解體하고 如何히 새로운 連帶를 形成하는가, 마지막에 가서는 人口移動은 새로운 階層構成에 어

---

⑥⓪ 黃性模, 韓國工業勞動力의社會學的分析(동사판) 1963, 第一編 第四章 및 第二編 第一章 참조.

떠한 役割을 하는가⑥ 하는 問題인 바 다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變化는 解體라기보다 새로운 統合이라는 極積面이 發見促進되어야 할 것이라는 當爲的인 問題提示로서 끝내고자 한다.

세번째의 問題領域은 以上과 같은 社會移動의 問題와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統合이라는 一般問題이다. 이 問題속에서는 社會의 諸組織의 統合의 問題와 특히 全國的 次元에 있어서의 指導核心分子의 動員의 問題가 中心的 課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問題의 解決에는 여러가지 具體的 與件이 더 큰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具體的 與件中에서 第一條件으로 指摘될 수 있는 것은 社會의 各領域속에서 얼마만한 數의 知識的·經驗的 그리고 技術에리트를 政治的 知識人의 價値觀에 의해서 統合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다. 그러나 한가지 밝혀야 할 點은 이때 經驗的·技術的에리트라 함은 現實的으로는 機能的 知識人의 社會身分의 所有者를 말하는 수가 많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政治的 知識人의 範疇에 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機能的 知識人은 政治勢力集團과는 利害關係가 成立되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基本的으로는 階段的 利害關係에 歸着시킬 수 있을만큼 階級分化의 背景에서 起因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며 그것은 同時에 機能的 知識人의 組織的 背景이 去勢될 때 政治的 知識人속으로 吸收될 수 밖에 없다는 必然性에서 그러한 것이다. 如何間 數的으로 政治的 知識人이 많은 것은 確實하다.

萬若에 이와 같은 事態에까지 進展하고 있지 안했다 할지라도 두번째의 與件은 現存政治的 支配構造와 關聯을 가졌든 혹은 안가졌든 間에 經濟的·文化的에리트가 政治的 知識人과의 關係에 있어서 얼마만큼 强한 自律性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 問題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政治的 知識人이 얼마만큼 內的 移民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얼마만큼 建實하고도 公明한 現實參與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經濟的·文化的에리트와 政治的 知識人사이에 共通된 基本方

向을 設定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定해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外國支配時代부터의 傳統인 政治的 知識人과 行政機構 사이의 對立 葛藤과 또 經濟的 獨立經營體와 政治的 知識人 사이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理想的인 方案은 發見되기 어렵다는 事實을 共通의 基本方向設定이 적지 않은 難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은 難點은 現實的으로 社會移動이 展開되고 있는 條件속에 있으면서도 에리트의 動員·選擇過程에 直接的인 困難性을 提供하는 것이다. 具體的으로는 이 點은 새로운 에리트(政治的 知識人의 指導層)와 傳統的 에리트·傳統的 構成體 특히 그들의 性分集團과의 對立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不幸히도 韓國의 社會科學의 機能은 이러한 問題를 正面으로 硏究對象으로 할 수 있을 志向性을 보이지 않했기 때문에 새로운 에리트와 傳統的 에리트 間의 相互疎外와 對立을 心理學化하는 데 그쳤던 傾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理論的으로는 새로운 에리트와 傳統的 에리트의 對立이 構造的인 產物이면 그럴수록 그것은 政治的으로 政治的 斷絕과 政治的 連續性과의 對立으로서 表現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의미한다. 勿論 現實的으로는 이와 같은 對立은 傳統的 體制의 修正度와 傳統的 에리트의 彈力性이 어느 程度까의 改革的 思想과 行動에 대해서 保障과 支持를 보내는가에 따라서 크게 변모할 수 있는 것이다. 確實한 것은 萬若에 傳統的 에리트가 現代的인 組織集團과 그 指導層의 發展을 權力地位의 獨占을 통해서 妨害한다면 그 對立은 典型化할 것이며 그 反對의 경우에도 政治的 連續性은 그만큼 維持될 수 있을 것이라는 點이다.

이 點은 表面上으로는 政治的 動學같이 보이지마는 그 實質은 傳統的 思考方式과 現代的 思考方式의 對立에서 由來되는 것인만큼 이 對立의 調整은 各種의 國家的·社會的 심볼을 設定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共同價値를 어떻게 發展시킬 것인가 하는 課題에 따라서 內容的으로 變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또다시 强調해야 할 것은 이와같은 調整

은 傳統的 社會價値體制의 새로운 것에 대한 適應度는 變化의 樣相에 重大한 影響을 준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反面에 對立과 葛藤은 새로운 現代的인 것 속에 內在해 있는 屬性이 아니라는 것도 認識해야 할 것이다. 傳統主義와 現代主義가 調和를 이루는 例는 基本的으로 傳統主義의 可變性·適應性의 程度에 依存하고 있는 것이다.

價値問題에 있어서 또한가지 問題點은 우리의 政治的 獨立以後에 있어서의 國家社會的 集團價値가 現代的 經濟政治制度의 正常的 發展에 果然 이바지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障害的 役割를 했는지 하는 問題인 바 아마 이 問題야말로 韓國의 現代化問題의 集點을 이루는 것이어야 할것이다. 여기에 대한 對答은 이미 斷片的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또 한가지 指摘해야 할것은 우리나라에서 旣往 形成되었던 組織化된 行動의 基本動機가 무엇이었는가를 分析해야하는 課題가 남아있다는 點이다. 그것은 또한 近代化問題에 있어서 玉石을 가리는 基準이 될른지도 모른다. 한가지 가까운 곳에서 例證을 하자면 그것은 日本의 경우가 될 것인 바 日本은 明治維新을 통해서 現代國家建設이라는 集團表象밑에서 官僚獨占資本主義와 軍隊組織이 크게 發展해 왔기는 하지마는 그것은 同時에 政治的·社會的·心理的·近代化에 基本的인 障害가 되었다는 事實이다. 日本에 있어서의 反天皇主義運動·反傳統主義運動이 1945年까지는 끝끝내 過激少數派의 이데올로기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社會的 背景은 여기에 있었다.

이 點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政治的 知識人의 指導層과 大衆의 關係를 살펴보는 데 좋은 參考가 될 것이다. 무엇인가 하면 少數知識的 에리트는 基本的인 問題에 대해서 正面으로 그리고 公共性 위에서 問題解決을 展開하지 않은 限에 있어서는 그것은 邊邊活動에로 分散할 수 있는 可能性을 더욱 크게 해주며 結果的으로는 大衆의 準據基準과 知識的 에리트의 그것과의 사이에는 社會的 距離가 생긴다는 點이다.

아이젠스탓트가 말하는 네번째의 問題領域은 우리나라에서는 本質的

으로 그의 세번째의 問題領域과 關聯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重言의 必要를 느끼지는 않다.

이글을 끝맺는 데 있어서 只今까지 粗雜하게 序秩되어 오는 가운데에서도 窮極的으로 解明이 주어지지 않은 두 가지 問題가 남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하나는「近代化」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萬若에 그것이 前近代的 政治經濟構造와 이를 維持機能시켜주는 諸般社會組織과 社會心理를 止揚하고 西歐的 政治·經濟樹立에로 再統合하려는 總體的 社會變化를 의미한다면 이와 같은 의미의 近代化는 砂上樓閣 속에서 構想된 槪念이 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暗示하려는 것이 여기에서 試圖한 粗略한 社會學的 分析의 底意였기도 하고 歷史的 事實로서 獨逸의 경우와 中國의 경우를 參考로 한 意義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社會의 再編成은 우리들의 價値觀樹立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고 있는 近代化라는 口號속에 감추어지고 있는 神話性을 分析하는 作業부터 始作해야 한다는 課題가 提起되기도 한다. 그것은 同時에 近代化가 西歐化를 의미하는 限「……에로의 變化」를 의미할 것인데 이와같은 目的志向性의 根底에는 連續性이 大前提가 되고서 構成되는 論理라고 할 것같으면 우리의 問題는 오히려「……에서 부터의 出發」을 의미할진대 거기에는 連續性은 二次的인 뜻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의 論旨는 우리의 政治·經濟의 歷史는 스스로 그「무엇에서부터 出發」해야 하는가를 定해 주는 데 暗示를 주고자 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問題는 獨逸의 政治的 近代化過程에서 볼수 있었던 바처럼 近代化가 特定한 階級의 發展過程과 같은 뜻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우리 社會에서는 近代化의 擔當勢力을 階級勢力에서 歸着시킬 수 있는 階級構成을 이루고 오지 못했다는 面에서 社會變化의 力源의 所在

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關聯에서 韓國의 知識人 속에 그 力源의 所在를 찾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知識人이 왜 對象이 되는가는 解明되지는 안했다.

知識人이 自己와 社會와의 關係에 있어서 批判的이다 하는 것은 知識人의 本來的인 特徵은 아니다. 그것은 特殊한 歷史的·社會的 產物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歷史的·社會的 條件은 知識人의 批判이 가장 典型的으로 表現될 수 있는 與件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知識人이 問題의 集點이 되는 眞正한 뜻은 만하임이 말하다시피 知識人이 가지는 "動的統合"을 위한 知能은 「社會의 領域에 浸透하는 動因이 되고……아울러 모든 것을 언제나 새로운 狀況위에서 問題를 提起해 주는」 能力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록 現實的으로 知識人이 社會的 現實에 대해서 이미 紹介한 바와 같은 그 特徵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知識人들의 自己疎外가 批判的이며 同時에 變化를 要求하고 있다는 表現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知識人이 社會動學의 基盤이 될 수 있는 潛在力은 다른 어느 社會集團보다는 크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問題는 知識人의 完全한 自己疎外는 知識人의 社會機能이 完全히 喪失되는 그 瞬間일 것인데 韓國의 政治的 知識人은 日帝下에서도 現實에 대해서 完全自己疎外를 보일 일이 없었다는 傳統은 새로운 社會勢力構成의 唯一한 可能性으로 남는다는 것이다.